

www.hanjin.com.au HANJIN REMOVAL P/L **한진운송**

한국 / 호주 전지역 택배
세계 각국 택배

● 일반이사 ● 해외이사 ● 택배이사

개업 21주년 기념 특별할인

정식 이사보험 가입된 회사
전통있는 최우수회사
믿을 수 있는 운송회사
고객 만족도 100%

7개 라인 최다차량 보유 8대
02 9648 2424

0431 24 24 24 23-25 Byrne St,
070 7899 4444 Auburn NSW 2144
removal@hanjin.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Australia NO.1 Korean Community Newspaper

AUS SOLAR ENERGY GROUP **태양광**
솔라 설치!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No. 1579(호) 2024년 3월 22일

www.koreanherald.com.au / E-mail: herald@koreanherald.com.au

제이원 보석
J.Won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반지 등

*금 매입합니다.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T. 9763 1355**
Mon-Fri : 10am-6pm / Sat : 10am-3pm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데이터를 기반으로 AMP은행 세인 올리버(Shane Oliver) 연구원이 분석한 주요 도시 주택가격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29%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AMP 연구원의 '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자료 분석
호주 부동산 가격은 적정 가치 비해 얼마나 과대평가 된 상태일까 B17면

K 민사 형사
기업 부동산
고용법 이혼

KIM & ASSOCIATES
김성호 대표 변호사
직통 무료 상담
(02) 9283 5550
KNA1805

오상원 치과
Dr. Sam Oh & Associates DENTAL CLINIC

• No Gap Fee 진료
• CDBS 와 정부바우처 진료
(어린이/틴에이지 치과진료예택)

캠시 병원 **이스트우드 병원**
P 02 9718 3450 / M 0411 552 987
1/8 London St Campbell NSW 2194
(세종빌딩 맞은편)

P 02 9804 1054 / M 0466 909 560
1/35 Railway Parade Eastwood NSW 2122
(이스트우드역 맞은편, 계단 사용)

온라인 예약 | www.dentalforyou.com.au

miraie 미래종합금융/보험
Insurance Services

우량 보험사간의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비즈니스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 신규사업 보험 전문 상담 ■ Public Liability
■ 상업용 건물 · 차량 · 장비 보험
■ Workers Compensation
■ Professional Indemnity
■ 생명보험 · 암보험
■ 현재 가입된 보험 무료 Review

호주 전 지역
보험 진행 가능

www.miraefinance.com.au **1300 882 595**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6층 603호

Hti Home Loan Finance

당신의 행복 파트너
하이홈론 파이낸스
장현철 **0430 421 115**

시드니 최고의 요지 '로즈' 신규분양 판매 임박

로즈 Rhodes 최상의 건설품질! 마지막 프라임 로케이션!
평생 워터뷰 & 시티뷰, 독보적인 매물을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

1,2,3 베드
평생 워터뷰
문의요망

빌버지아 건설사 | 인스펙션
틈세일즈 에이전트 | 상담문의

윤호인 0415 007 109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 NO 관리비

홍지윤 Sue Hong **0450 396 337**

AUS SOLAR ENERGY GROUP
ABN: 78 138 964 100

3월 특가 할인중!

호주 유일!
15년 경력 CEC 호주정부 승인
태양광 솔라 설치 전문업체!

Aus solar Energy group 은 고객님과 약속합니다

- 10년 이상의 확실한 워런티 보증 서비스
- 호주 유일 15년 경력에 CEC정부허가 보유 업체
- Aus solar 소속 설치팀 & 전기공 사용 (하청업체 사용 X)
- Roof 지붕 워런티 보증 서비스 완벽제공

12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Aus solar 시공사진

Aus solar 창고

가정용 솔라 시스템

6.6KW 태양광 시스템	13.3KW 태양광 시스템
단돈 \$4,090 inc GST	단돈 \$7,390 inc GST
or \$356.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or \$631.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타업체가 CEC 정부승인 & 13년 이상 경력 업체일 시,
솔라 설치비용 타업체와 가격비팅 가능합니다!

*10KW 솔라 설치도 가능합니다.

상업용 솔라 시스템

40KW 이상 솔라시스템 무상설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Oliver Kim 에게 연락주세요 *

교민여러분, 이제 전기료 걱정 끝! 전화상담후 계약시 깜짝선물을 제공!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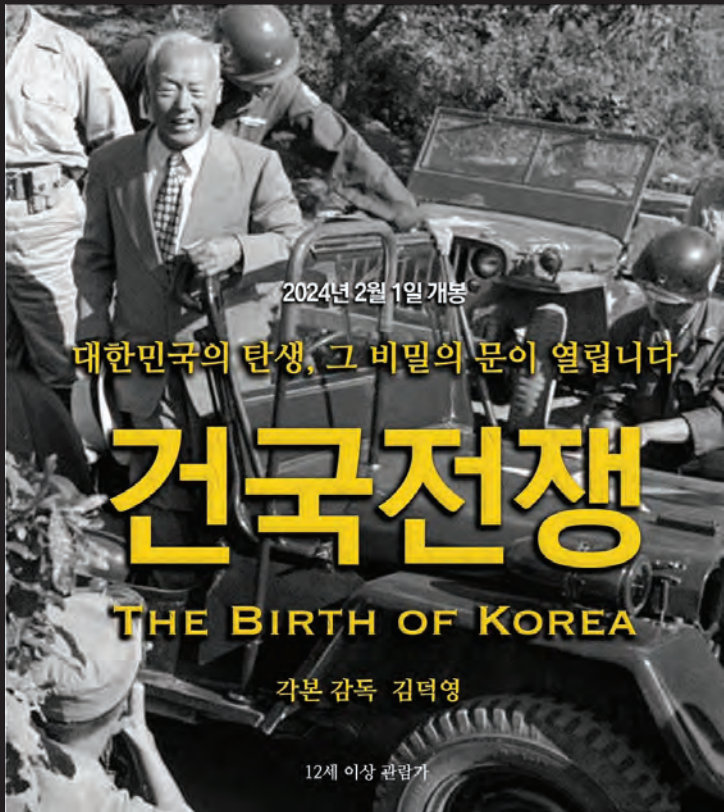
CLEAN ENERGY COUNCIL
APPROVED SOLAR RETAILER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Sales & Marketing Manager
Oliver.kim@aussolarenergygroup.com.au




건국전쟁

호주시드니 상영!!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

대한민국의 탄생 비밀을 재조명하고
진실에 다가서는 웅장한 다큐멘터리!
120만 관객을 울리고 역사의 진실을
민족의 가슴에 담아준 대작을
시드니에서 꼭 만나보십시오.

<상영일정및 영화관 안내>

- 4월 2일 (화) | Reading Cinema 3 Rhodes 오후2시
- 4월 3일 (수) | Reading Cinema 4 Auburn 오후2시
- 4월 4일 (목), 4월6일 (토) | Reading Cinema 3 Rhodes 저녁 6시 30분
- 4월 5일 (금), 4월7일 (일) | Reading Cinema 4 Auburn 저녁 6시 30분

<입장료>

- 성인 \$25 · 학생(대학생 포함) \$10
- 단체관람(10명이상)은 사전예약 필수 (사전예약 문의: ☎0410 435 881)
- 티켓은 현장에서 구입 / 매회 50석예매 완료 / **매회당 76석만 선착순 현장 구입 가능**
- 티켓 예매 안내: 아래구좌에 입장료를 인터넷으로 입금하시고 성명/관람 희망 날짜를 전화번호 0410 435 881에 남겨 주시면 현장에서 입장권 교부합니다.

A/C Name: AKWL | BSB: 633000 | A/C No: 208374 280

주최: 국제 자유주권총연대 호주 협의회/한국 자유총연맹 호주지부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물가지수 연동 따른 조치, 3월 20일(수)부터... 홀부모, 2주 17.50달러 추가 혜택



물가지수 연동(indexation)에 따라 이달(3월) 20일부터 노인연금, 구직자 및 ABSTUDY 보조금 등 정부 복지혜택 수혜액이 인상, 지급된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센터링크(CentreLink) 사무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이달 20일(수)부터 고령 연금 수혜자(pensioner), 구직자(jobseeker), 학생 등 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됐다. 이는 연간 두 차례의 물가지수 연동(indexation)에 따른 혜택으로, 이로써 성장기 자녀를 가진 홀부모 수당은 2주에 17.50달러, 부부의 경우 12.30달러 인상됐다. 또한 노인, 장애인 지원

및 간병인 수당을 받는 독신은 2주에 19.60달러가 높아져 1,116달러를 약간 넘는 혜택을 받는다. 이 지원금 수혜자인 부부의 합산 소득은 2주에 29.40달러가 늘어났다. 구직자 및 ABSTUDY 수혜자는 주택 임대료 지원 등 기타 수당을 받기 전, 2주에 13.5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jobseeker 커

플에게는 2주 12.30달러, 총액 698.30달러가 지원된다.

연간 22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부 복지 혜택은 약 500만 명의 호주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사회복지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장관은 “우리(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압박을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연금이나 기타 복지 수혜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일부이며 많은 이들이 평생 우리 사회에 공헌했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고 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런 한편 더 많은 복지 수당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번 인상액에 대해 “현재의 높은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복지 관련 한 자문기구는 현재의 구직자 수당 요율(rate for Jobseeker)을 다른 복지 수당 및 국가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심각하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직자의 새 지급 요율은 하루 54.50달러 미만이다. 지난달(2월) 정부 조사에서 녹색당 재닛 라이스(Janet Rice) 상원의원은 집권정부를 향해 “말장난 그만두고 모든 복지 지불금을 하루 88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라이스 의원은 “소득 지원의 소폭 증가는 분명 높아진 생활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그 증거는, 이 혜택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간

단하고 효과적이며 시급한 조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호주 사회복지협의회인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카산드라 골드(Cassandra Goldie) 최고경영자는 구직자 수당의 경우 최소 하루 78달러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호주와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빈곤이(개개인의) 선택”이라며 “이는 또한 정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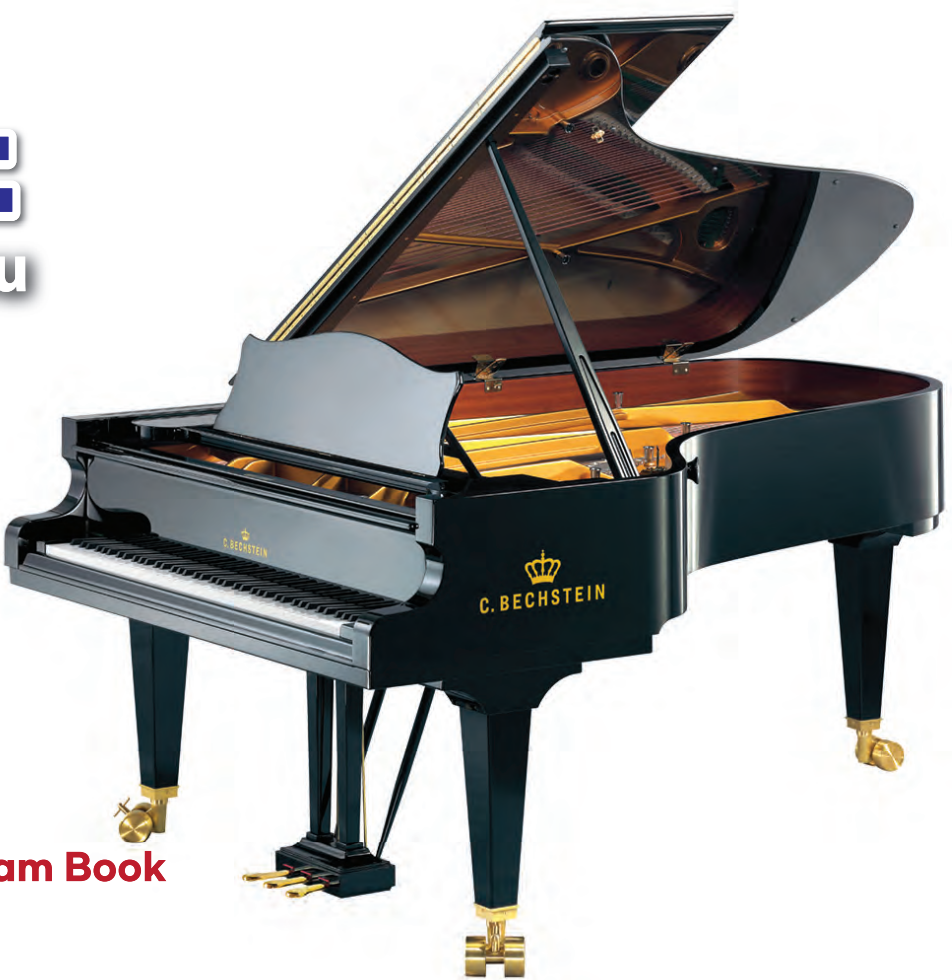
이어 골드 CEO는 “해결책은 분명하다”면서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피아노의 명가(名家)

가스펠피아노
 www.gospelpianos.com.au

C. BECHSTEIN 벅스타인	Wm. Knabe & Co. 크나베
W. HOFFMANN W.호프만	KOHLER & CAMPBELL 컬러앤캠벨
SEILER Flügel und Pianos 자일러	KETRON BEST NATURAL SOUNDS 케트론(이태리)
Roland 로렌드	CASIO 카시오
YAMAHA 야마하	KAWAI 카와이



- Pianos
- Keyboards
- Digital Piano
- Ukulele
- Guitar
- Flute
- AMEB Grade Exam Book
- Lesson Book 교재
- Organ

가스펠 피아노사는 독일, 한국, 일본, 이태리,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및 키보드 등을 직수입하여 호주 전 지역에 총판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최대 새 피아노 & 중고 피아노 총판매장

CLYDE | 35-37 Parramatta Rd
PH 9724 2022

RYDE | 231-235 Blaxland Rd (Cnr Lane Cove Rd)
PH 9809 5000 일요일 오픈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재정부 장관, 복지 프레임워크 포함... "자금 사용 아닌 웰빙 측정에 초점" 밝혀



The Hon. Courtney Houssos (ALP)
Minister for Finance and Natural Resources

NSW 주 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전통적 경제 지표 외 시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NSW 재정부 코트니 후소스(Courtney Houssos) 장관. 사진: LinkedIn / Courtney Houssos

2024-25 회계연도 예산계획을 준비 중인 NSW 주 정부가 경제성장과 고용, 적자(또는 흑자) 등 예산안에 포함하던 전통적인 경제 지표 외에도 주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주 예산을 변경한다

는 방침이다. NSW 재정부 코트니 후소스(Courtney Houssos) 장관은 향후 예산안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 (positive social outcomes)를 촉진하고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과 및 복지 프레임워크가 포함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성과 및 복지 지표는 오는 6월 발표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후소스 장관은 "이는 우리 주 예산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주 정부는 이것이 별도의 예산계획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경제 통계의 경우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생활 조건을 충분히, 상세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우려 속에 몇몇 부유한 국가 정부는 이미 자국민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호주의 경우,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가 경제 컨설팅 회사 'Lateral

Economics'에 의뢰해 작성한 2011-22년 경제 지표('Herald-Lateral Economics Index of Australian Wellbeing')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호주인의 집단적 웰빙 개선은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뒤쳐졌음을 보여준다.

후소스 장관은 성과와 복지 프레임워크가 NSW 주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것임을 전하며 "정부에 대한 조언에 웰빙 고려 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건강, 수명, 교육수준과 같은 중요 비경제적 결과를 측정하고 비상시 응급실에서 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받는 비율 등 웰빙 성과 지표를 들어 있다.

장관은 학교 교육표준의 개선을 측정하는 것은 복

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어 "NSW 주는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교육 성과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어린이가 어디에서 태어나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호주와 같은 평등주의 국가의 파괴적인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주 정부가 직면한 큰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리는 이 해결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고객님의, 고객님에 의한, 고객님을 위한

용자 상담인이 되겠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고준서 드림 -

주택용자
- 첫 주택구입
- 투자
- 재용자

상업용 건물 용자

자동차, 장비 용자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의 Cash

Rate 이 2023년 11월 7일 0.25% 올려서 **호주 중앙은행**

Cash Rate 은 4.35% 가 되었습니다.

RBA의 이자율 변동을 알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info@miraclefinance.com.au 이나

전화번호 **0408 815 816** 으로

정확한 영문 Spelling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매월 RBA 이자 변동 안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용자 이자율을 확인하셔서 Update된 낮은 이자율로 재용자 하시어 현금 보너스도 받고 낮은 이자율로 매월 상환되는 이자금액을 절약 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Australian Credit Licence Number:388928
ACN:135 113 594

MFAA Full Member 55117



Mob. 0408 815 816 / Ph. 02 8068 4168

1085 Victoria Rd, West Ryde NSW 2114

Little's 법무법인 리틀즈

교통사고! 일하다가! 다쳤어요!

NO WIN
NO FEE

무료상담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연금보험
- #공공장소사고
- #개인상해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보상! 배상은 치료비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진 변호사
0408 249 334



안가희 변호사
0408 632 333

재활 및 의료비용 | 주급 손실 | 심각한 상해시 일시불 배상금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Group of Eight' 외 대학들, 학생비자 처리 방식에 대한 정부 접근방식 비난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사진) 장관. 정부의 새 이민전략과 학생비자 승인 강화에도 호주 주요 대학 국제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우리(연방정부)는 새 학생비자 시스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연방정부의 새 이민 계획에 따라 국제학생에 대한 비자 승인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정부와 고등교육 기관 및 관련 업체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주의 상위 주요 대학교(일명 'Group of Eight')의 유학생 수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of Eight(G8)의 비키 톰슨(Vicki Thomson) 최고경영자는 이 수치에 대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들 대학 외 고등교육기관들은 유학생 비자 처리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접근방식을 비난했다.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우리(연방정부)는 새 학생비자 시스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학생 등 이민자를 착취하고 수준 높은 국제교육 제공 국가로서의 호주의 명성을 훼손하는 의심스러운 대행업체에는 제재를 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으로 사립 기술훈련 대학 등에 입학하려는 해외 유학생의 비자 승인이 크게 줄었지만 최근의 새 데이터에 따르면 내무부가 신청된 학생비자 처리에 있어 '위험 기반 접근방식' 을 채택한 지난해 12월 이후 G8 대학의 유학생은 이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주요 대학 국제학생 비자승

인은 2022년 12월에서 23년 1월 사이 1만8,913건에서 2023년 12월-24년 1월 사이 2만1,618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사립 교육기관 입학을 원하는 국제학생들의 비자 처리를 엄격하게 시행한 반면 호주국립대학교, 시드니대학교, 멜번대학교를 포함한 G8 교육기관은 학생비자 승인 시스템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지난해 노동당 정부가 내놓은 새 이민정책은 다음 연방선거(2025년 9월 예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국민연합 야당은 이를 선거 캠페인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야당 이민부를 담당하는 맨 테한(Dan Tehan) 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 부문에서의 학생비자 신청

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거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이전 6개월 동안 전체 학생비자 신청 가운데 80%만이 승인되었으며,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립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호주 내 국제학생 수도 지난해 9월 66만4,000명에서 12월에는 54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국제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이들이 학생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막고자 보다 학생비자 신청에 엄격한 영어능력 시험 및 재정적 상황을 요구했으며, 거짓 서류로 학생비자 업무를 처리하는 교육대행 업체(유학원)에 대해서는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정동철 변호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력난이 극심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직종 482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문호를 개방했다. 나아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취업비자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바야흐로 호주 이민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우려하는 여론에 현 노동당 정부가 굴복했다. 당장 내년부터 학생비자 심사를 강화해 인구 유입을 대폭 막을 태세다. 거기다 내년 말부터 현행 482비자 대신 새로운 비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자 신청인이 스폰서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엄청 단축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역시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직종 명단이다. 현행 단기와 중장기 분류는 폐지되고 호주직업기술국(Jobs & Skills Australia)이 관리하는 선호직종 위주로 명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482 취업비자 직종들이 그 명단에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해, 내년 말에 새로운 취업비자가 시행되면서 아예 본인의 직종이 사라지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법은 어렵더라도 예측 가능하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가급적 현행법 아래에서 어떤 직종으로든 482 취업비자만 받으면 향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 남은 6-9개월이 수월하게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

- 회사/비즈니스/개인 관련 소송 등 제반 분쟁 해결
- 비즈니스 매매, 주류라이선스, 리스 등
- 주택, 상가 매매 및 부동산 개발
-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분쟁
- 유언장 작성, 유산 집행 신청, 법적 대리인(POA) 지정
- 투자, 사업, 창업, 학업, 취업 등 여러 문제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이민법 서비스

- 사업 및 투자비자, 이민/취업 고용 비자, 이민
- 점수제/주정부/지방고용주 기술비자/영주권
- 가족이민(결혼/부모/자녀 초청)
- 종교인 비자/Labour Agreement
- 재심/장관탄원/연방법원 제소
- 코로나19 관련 호주 입국 제한 면제 신청

노터리 퍼블릭/서류작성 서비스

- 노터리 퍼블릭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정부,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 편지, 이메일 작성 대행
- 각종 신청서류 (연금, 수당, 보험금 등) 작성 대행

0412 779 281 카카오톡 아이디 : doota21

이메일 echolawyers@outlook.com 주소 Suite 16, Level 2, 10 East Pde Eastwood NSW 2122





세계한인교민청

WORLD KOREAN FEDERATION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인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 1 어떤 **정치 system**을 선택하느냐,
- 2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
- 3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 4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인구 5천만인 나라중에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완성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베로교수는 깨끗한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이다. GNP \$12K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로버트베로는 먼저 먹고살고 민주화 할 것인가 민주화 먼저하고 먹고살 것인가, 이승만.박정희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부터 순서를 잘 정해서 자유.부국 대한민국을 이뤘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한미 동맹
이승만 박정희
기독교 입국론

대한민국은 먹고사는 문제
처리 후 민주화

북한

공산주의
사회 통제 경제
조종 동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 사상

북한은 핵 먼저하고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의 세례교인이 천칠백만입니다. 반듯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자유통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일본은 수뇌부를 전도해서 힘있는 소수를 전도했고, 대한민국은 여자와 종들을 전도하므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선비문화를 개화시켜서 현재와 같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애국하는 일은 **자유 통일당에 가입**하여, 금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우파에서 이겨서 **악법들을 없애고**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이념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행사에 필요한 자금 마련과 애국자들의 연금 마련을 위하여 선교 카드 만들기, 전화번호 이동에 참여하여 애국운동을 하는데 정부의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자족하여 계속적으로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 **애국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호주에 사셔도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과 한국에 계신 지인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애국의 시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자유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 재외 선거 3월 27일~4월 1일

모임

일시: 2024.03.28 (목)
오전 11시

장소: 메릴랜드 RSL 특실

(전철역에서 걸어3분거리)

주소: 8 Miller St, Merrylands
NSW 2160

회비: 30불

*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연락처

0412 759 971(유준웅)

0412 593 434(박광일)

2024년 3월 10일



세계한인교민청
WORLD KOREAN FEDERATION

호주시드니 지회 대사 유준웅 외 회원일동



호주의 상위 주요 대학교(일명 'Group of Eight') 국제학생 비자 발급이 2022년 12월에서 23년 1월 1만8,913건에서 2023년 12월-24년 1월 사이 2만1,61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들 대학 또한 정부의 새 이민정책으로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G8 중 하나인 멜번대학교. 사진: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6면에서 이어받음

직업교육-기술훈련교육 단체인 'Independent Tertiary Education Council Australia' 는 정부가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인도 학생들의 비자 승인을 거부 함으로서 인도 국민들 사이에 호주의 국가적 명성이 위협에 처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호주 주요 대학 입학에 대해 비자를 신청하는 국제학생들의 비자승인 또한 이전처럼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달 호주국립대학교(ANU) 국제학생 입학 담당하는 브렌던 러트 위 슈 (Brendon Lutwyche) 부국장은 자칭 '정치적 소셜미디어 성명' 이라 밝힌 LinkedIn 게시물에서 유학생 비자승인 강화를 호주의 광업 부문 수출 규제에 비유하면서 연방정부가 비자 승인을 극적으로 삭감하는 과

정을 '은밀한 이민자 수용 제한' (imposing a migration cap by stealth) 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다른 대학 유학생 담당자들로부터 지지를 불러 일으켰다.

Group of Eight의 톱슨 CEO는 2023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유학생 비자승인이 증가한 것과 관련, "우리(G8)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증거" 라면서 "하지만 이 수치는 호주가 팬데믹 제한 이후 국경을 재개한 기간을 반영하기에 약간 부풀려질 수 있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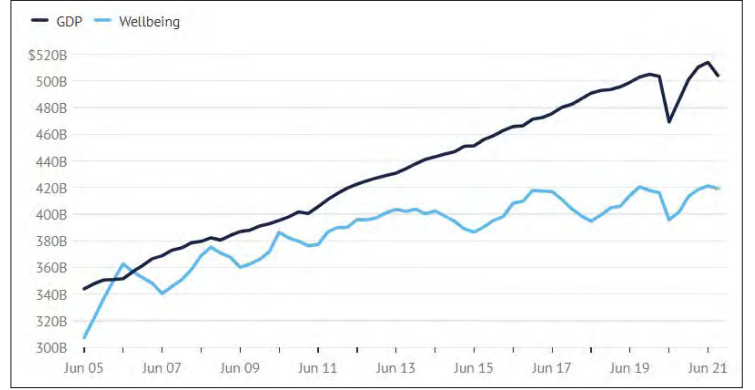
연방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호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 지난 회계연도 유입 인구가 5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새 이민전략을 내놓으면서 이번 회계연도 37만5,000명, 2025년에는 25만 명으로

축소해 정상적 수준으로 돌려놓을 방침이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영구적 임시 체류' (permanently temporary)로 만들지 않기 위해 '호주 유학 기준' 을 강화한 것, 즉 학생비자 승인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오늘 장관은 "현 정부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전 정부(자유-국민 연립)처럼 모든 신청자에게 학생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이다.

국제 학생 단체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 의 필 허니우드(Phil Honeywood) 최고경영자는 "교육기관들이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있지만 대행업체들은 이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령 위험이 낮은(학생비자를 받아 교육보다는 저임금으로 일하는 유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다른 모든 학생비자 제공자 사이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추세는 대학 간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수 민간 교육대행 서비스 제공업체가 잠재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2005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NSW 주의 GDP, 웰빙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 왼쪽의 수치는 10억 달러 단위의 분기별 자금 흐름을 나타낸다. Source : Herald/Age-Lateral Economics Index of Australian Wellbeing

▶4면에서 이어받음

NSW 주 정부의 웰빙 추진은 지난해 7월, 노동당 정부가 집권 4개월 만에 도입한 'Measuring What Matters' 프레임워크와 함께 작동하게 된다. 이는 50개의 지표를 사용해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성과 결속력 및 번영하는 호주' 를 향한 진전을 평가한다.

주 정부는 'Measuring What Matters' 성명에서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 고용 등 전통적 경제 지표가 호주사회의 웰빙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님' 을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경제적 조치가 항상 사회-환경적 성과를 적절하게 트옘하거나 국내 및 국제적 위험을 포착하고 모든 호주인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면서 "건강 부분의 성과와 같은 광범위한 조치 중 일부의 향상이 경제적 번영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는 말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

후소스 장관은 '웰빙

평가' 를 증진하는 NSW 주와 연방정부의 접근 방식에 '많은 공통점' (a lot of commonality)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 통계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웰빙 프레임워크' 를 활용하는 다른 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이 있다. 장관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웰빙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NSW 주 예산의 성과와 프레임워크는 250개 이상 부분의 결과, 700개의 다양한 성과 측정값을 포함하는,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 도입 결과보고서를 대체하게 된다.

주 정부는 새 프레임워크를 의회 공공책임위원회(public accountability committee)에 회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작업 과정에는 지역사회 및 서비스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협의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J.won Jewellery

제이원 보석

www.jwondiamond.com.au

9763 1355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플라자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Open Hour Mon-Fri 10pm~6pm Sat 10am~3pm

#24시간_대기
#시드니_일일관광
#공항픽업



1577
공항픽업
TAXI

시드니 일일 관광투어! 시드니 공항픽업!

☎ 040 344 1577

TALK 1577call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인플레이션 수치 목표 범위까지는 '시간 필요' 밝혀, 동결 배경은 '경제성장 둔화'

통화정책 일정을 변경한 후 올들어 두 번째 열린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이사회 회의에서 '현재의 이자율 동결'이 결정됐다. 가장 큰 이유는 2022년 5월 이후 13차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 급격한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결정된 4.35%의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유지된 가운데 RBA는 "그 어떤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RBA가 올해 하반기 이자율 인하를 시작하기 전, 인플레이션 수치 둔화라는 추가 신호를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시기를 11월로 예상하며, 다른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를 단행할 것이라 전망하는 상황이다.

이달 18-19일(월-화요일) 연속 이어진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RBA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하락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임을 언급했다.

이사회 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RBA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징후가 있지만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RBA의) 목표 범위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BA는 인플레이션이 2025년에는 목표 범위인 2~3%, 2026년에는 2.5%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어 "이것이 목표 범위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BA 미셸 불록(Michele Bullock) 총재는 이날 회의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RBA를 '덜 매과적'(less hawkish)이라 표현한 의미를 무시했다. 총재는 "이

는 여전히 우리(RBA)가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과정에 광범위하게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부 데이터에 대한 반응"이라며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변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예측 기간 내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보이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록 총재는 "향후 이자율 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RBA의 이자율 인하, 언제 가능해질까

NAB 은행 시장경제 책임자인 타파스 스트릭랜드(Tapas Strickland) 연구원은 이날 통화정책 이후 RBA가 내놓은 성명에 대해 "덜 매과적"이라 해석하며, RBA가 올해 말까지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는 올해 11월 첫 번째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인하를 통해 2025년 말에는 3.1%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스트릭랜드 연구원은 "이번 통화정책 회의 후 성명에는 2024년 1분기 금리 인하의 실제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으며, 2024년 2분기 이후의 인하가 더 현실적"이라며 RBA가 "이자율 인상에 대한 노골적 편견보다는 선택적 사항임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 경제학자들 또한 올해 11월에야 첫 금리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이달 금리 동결 결정 이후 내놓은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UBS)는 여전히 11월 25bp의 첫 번째 이자율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분기별로 25bp의 느린 완화 주

기가 이어져 2025년 말에는 3.1%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UBS는 "이는 지속적인 공공수요 호황, 규제 및 공공 부문 임금인상, 상당한 추가 재정부양책, 그리고 7월 이후의 대규모 가계세금 인하(household tax cuts)로 국내/임금 인플레이션이 다소 경직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커먼웰스 은행(CBA)의 국내경제 책임자 가레스 에어드(Gareth Aird) 연구원은 더 이른 시기의 금리인하 결정을 전망하면서, 그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말까지 75bp, 2025년 1분기 추가로 75bp가 인하돼 현금 금리는 2.85%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 둔화의 징후

25년간 대출기간에 평균 변동금리 6.39%를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5월 이후 13차례의 이자율 인상 영향으로 50만 달러의 모기지를 안고 있는 이들의 월 상환액은 1,210달러가 늘어났으며, 75만 달러의 대출을 가진 이들은 월 1,815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RBA가 올해 말 현금 금리를 인하하고 각 금융기관이 이 인하폭을 (대출자들에게) 완전히 적용한다면 25년 기간의 50만 달러 모기지를 가진 이들의 월 상환액은 첫 번째 인하에서 월 76달러, 다음 인하에서는 152달러가 줄어든다.

RBA가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전에 이미 인상된 금리의 영향으로 경제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연방정부는 물론 RBA, 재무부는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주력해 왔다. 하지만 현재 과제는 성장이 크게 둔화

된 상황에서 호주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RBA는 경기 둔화 조짐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각 가계의 실질소득을 짓누르고 있으며, 주택 투자와 마찬가지로 가계소비 성장도 약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총수요와 공급 사이의 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질소득이 안정되었고 이로 인해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올해 말부터 소비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요 완화로 인해 서비스 상품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RBA는 "국내적으로는 통화정책 효과의 지연, 과잉수요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기업들의 가격 결정 및 임금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타이트했던) 노동시장 상황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RBA는 "이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은 점차 완만해질 것이라는 징후와 함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경제 전망,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갈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RBA가 미국, 영국 중앙은행과 유사한 통화정책 회의(연 8회)를 결정함에 따라 다음 이사회 회의는 5월 첫 주 월요일(화요일까지 이어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 13차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 급격한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 회의를 가진 RBA는 지난해 11월 결정된 기준금리(4.35%)를 유지하기로 했다. RBA의 다음 이사회 회의는 5월 첫 주 월요일 열린다. 사진: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현재 호주 경제 둔화 조짐이 있지만 RBA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사람들의 실질소득과 가계소비 성장을 짓누르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꼬치전문점

일 말 에

日末에

Super
Delicious

하루의 끝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맛!



영업시간안내

마지막 주문 10:30pm

월-토요일

일요일

11:30am-2:30pm

저녁시간만 오픈합니다

5:00pm - 밤12:00

5:00pm - 밤12:00

스트라스필드 메리톤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

SHOP 121/20-34 ALBERT ROAD, STRATHFIELD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RBA 데이터, “유럽과 달리 호주 소매업체들, 수수료 통해 카드결제 비용 상쇄”



RBA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호주인들이 소매 업체나 서비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추가로 지출한 카드 수수료가 연간 거의 1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Master Card

대다수 호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알렉스(Alex)씨도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비용을 지불한다. 식사 후 카페에 들른 그는 간단한 디저트와 커피를 주문, 결제하면서 카드 수수료(surcharge)로 21센트를 추가로 지출했다.

모든 서비스, 소매업체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계속 쌓여간다. “어떤 품목을 구매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연간 약 200달러가 카드 수수료로 지출된다”는 그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멜번(Melbourne)에서 IT 기술자로 일하는 알렉스씨는 이어 “주택을 구입하느라 대출을 받은 처지이기에 한푼 한푼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출이 합쳐지면 개인 재정이 압박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중앙은행(RBA)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 호주인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의 수수료로 연간 9억6,026만 달러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수수료, 합법이지만...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가 금지된 영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호주 소매업체는 신용카드를 비용을 처리하는 고객

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해 카드발행 회사 결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알렉스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업체가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됐다. “지금 우리는 점점 더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곳도 생겨나는데, 소비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비용을 지불할지에 대한)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에서

는 수수료 비율이 적힌 표지판을 내걸어 놓기도 하지만 실제 청구액을 보면 구매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몰 비즈니스도 카드사 비용으로 어려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무선 단말기로 결제하는 ‘tap-and-go’는 업주나 소비자 모두에게 간편함을 주지만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방법인 대부분의 직불카드(debit card)는 듀얼 네트워크(dual-network) 카드이다. 즉 앞면에 ‘Mastercard’ 또는 ‘Visa’ 로고가, 뒷면에는 ‘eftpos’ 글자가 있다.

이 카드는, 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때 카드발행사 수수료가 더 저렴한 eftpos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카드를 탭(tap) 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수수료가 더 비싼 ‘파스타’ 또는 ‘비자’ 네트워크로 라우팅된다.

대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대형 업체에서는 거의 고객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카드발행사 결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카드 이용 수수료로)하는 작은 규모의 소매업체들은 높은 물가와 이외 비용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스몰 비즈니스 협의회 ‘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COSBOA)의 루크 아흐터스트라트(Luke Achterstraat, 사진) 최고경영자. 그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비즈니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카드 수수료라는 또 하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사진: Retailbiz



호주 은행협회인 ‘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의 안나 블라이(Anna Bligh, 사진) 최고경영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는 패키지의 일부”라며 여기에는 이밖의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

▶ 29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백세까지 호호탕탕"



65세 시니어분들께 희소식 !!

호주 연방정부 지원 <백호대학> 2024 건강/복지 프로그램

- ☑ 1년 동안 전문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 ☑ 여러가지 취미활동을 즐기며 방학때는 단체여행도 함께 합니다.
- ☑ 야외활동, 문화생활 체험, 건강스포츠, 월별/학기별 이벤트, 연말 대잔치.
- ☑ 웰빙센터에서 황토찜질방, 자연산책, 수영, 테니스, 영화감상 등 가능.
- ☑ 몸이나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픽업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 노인연금(pension)을 받으시거나, 재산이 많은 분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 ☑ 서로 잘 아는 것은 가르쳐 주고 모르는 것은 함께 배웁니다.
- ☑ 즐거운 삶을 위해 건강, 친구, 일 3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 ☑ 입학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 ☑ 화요일은 무료, 평일 및 토요일 취미반/특별활동은 참가비 회당 \$20.

- 2024년 프로그램 5개 클래스 (각반 정원 10명) *정원이 찰 때 까지 등록 가능
댄스반, 미술반, 모바일폰 반, 탁구반, 하이킹/등산반
- 의료지원, 건강/복지: 매주 화요일 10am~2pm (버우드 RSL 클럽, 96 Shaftesbury Rd)
- 취미반: 월/수/목/금 10am~12noon (이스트우드 백호대학 센터, 3월 첫주 오픈)
- 토요 특별활동: 하이킹/등산, 낚시, 탁구, 소풍, 영화관람, 전시회, 여행 등등
(장소는 시드니 시내 및 근교 여러 장소 등 그때그때 다름)

<백호대학>은 호주 비영리 복지단체 <GCMA 마이리버랜드> 소속으로 한인언론사 <한국신문>에서 주관하는 신개념 시니어 복지학교입니다. 한인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 지원하는 <백호대학> 에 오셔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자원봉사자
문의 환영

등록문의 0425 282 697 (이기태)



3BEAUTY HEALTH & WELLNESS CENTRE

3뷰티 건강증진센터

YOU BECOME HAPPIER & HEALTHIER

캔트허스트 소재 3Beauty 건강증진 센터는

전문 건강/의료팀이 각 **개인별로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립니다. 의료 서비스부터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편안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대면 진료/서비스 가능)

3뷰티 산후조리원

3Beauty 산후조리원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최고의 산후 케어 서비스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준비합니다.

- 1) 경력 산부인과 간호사와 유아보호사가 함께 하며, 응급시 GP 와 연결하는 응급지원 시스템
- 2) 한의사 및 운동관리사가 처방하는 산후보약 및 산후 회복운동
- 3) 전문 바디관리사에 의한 식단관리 및 마사지 서비스
- 4)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독립 공간과 친절한 1:1 케어 서비스
- 5) 7천평 대지위에 잔디와 나무들로 구성된 자연 친화적 환경

3Beauty 부대시설

편백나무 황토 찜질방 / 야외 수영장 / 테니스 코트 / 골프 퍼팅 & 벙커 존 / 산책코스

NDIS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3Beauty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을 소개합니다.

본 센터의 장애인 건강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 NDIS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개인별 맞춤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능력 향상과 2차질병 예방을 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만, 당뇨, 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예방하고, 전문의료팀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개인별 운동처방, 식단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가능

- 장애 대리인들과의 정기미팅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 장애인 개인별 체형교정을 통한 성장촉진 및 통증완화
- 개별별 맞춤 운동처방 및 식단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 의료서비스 연계 - Therapeutic Service (Allied Health) 및 GP 소개

1) 장애인을 위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영양/식사/체중 관리를 위한 준비, 자세/영양섭취/개별식단 상담, 자가체크 노트제공

2) 장애인을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 - 전문 운동처방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지도

3) 지속적 건강/질병예방 관리

단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NDIS 당국에 제출할 수 있음

(2) NDIS Youth (금요일 저녁 ~ 토요일 오전)

3Beauty 건강증진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마이리버 랜드 NDIS Youth 프로그램에 참여할 장애인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하이스쿨 학생 또는 만30세 미만의 학생들

금액: NDIS Fund 에서 지불

인원: 최대 8명 (별도 남/여 숙소)

Respite / SIL / Core support / Capacity building

서비스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상담, 문의, NDIS 관련 Consulting 을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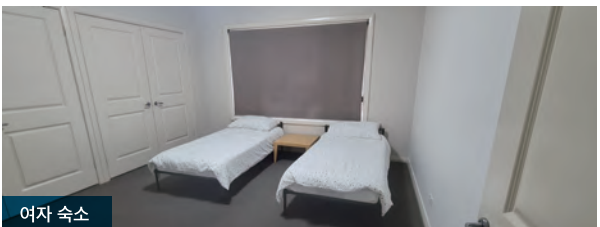
[금요일 프로그램]

5 pm	센터 도착
5 ~ 6pm	개별운동처방 관리 및 식단관리 프로그램 점검 및 진행
6 ~ 7 pm	전문요리사가 준비한 건강식단 제공
7 ~ 9pm	다양한 ACTIVITY - 영화감상, 노래방, 게임 등등
9 pm	개인위생활동 후 취침준비

[토요일 프로그램]

8 am	아침식사 및 숙소 출발
8 am~ 1 pm	야외활동 프로그램
2 pm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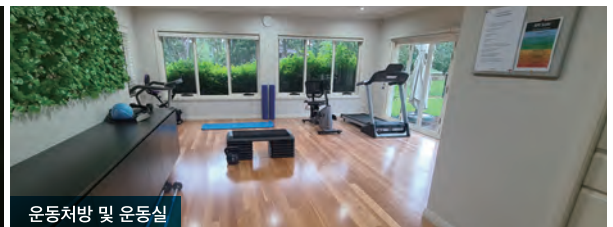
+ 1:1 개인 상담 및 센터 투어 환영합니다 (예약 필수) +



여자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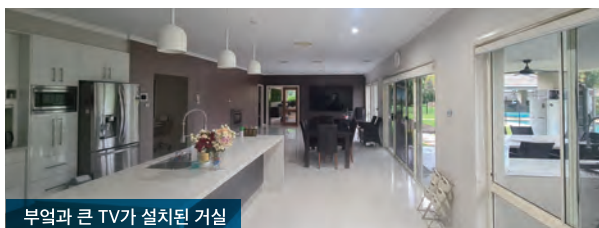
넓은 화장실과 샤워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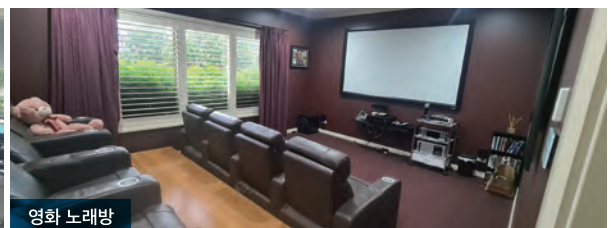
운동처방 및 운동실



남자 숙소



부엌과 큰 TV가 설치된 거실



영화 노래방

☎ 상담 문의 : 0430 903 930

TALK house9349

주소 : 1 Hazeldean Place Kenthurst

시드니 한국문화원, 전통 옷칠 예술의 아름다움-다채로움 선보인다

코리아나 화장박물관과 협력, 문화원-호주디자인센터서 '자연의 빛, 옷칠전' 개최

한국 전통 옷칠의 아름다움이 호주인들에게 소개된다. 주시드니한국문화원(원장 윤선민, 이하 '문화원')은 코리아나 화장 박물관(관장 유상옥·유승희), 호주디자인센터(관장 리사 카힐)와 협력하여 '자연의 빛, 옷칠전' (Ottchil: Light from Nature)을 문화원(3월 22일-6월 21일)과 호주디자인센터(3월 22일-6월 1일)에서 진행한다.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품은 물론, 전통 옷칠 기법을 이어오고 있는 장인 및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변화하는 옷칠 예술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호주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되는 전시('Light from Nature: Kim Dong Wan and Lucy Simpson')는 유리공예에 옷칠을 접목한 김동완 작가의 작품과 시드니 기반의



한국 전통 옷칠의 아름다움을 호주 사회에 소개하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한국문화원은 코리아나 화장 박물관과의 협력으로 문화원 갤러리에서 '자연의 빛, 옷칠', 그리고 호주디자인센터에서 '자연의 빛: 김동완, 루시 심슨' 전시회를 마련했다. 사진은 정직성 작가의 '자개'. 사진: 한국문화원 제공

왕갈(Wangal. 지금의 시드니를 기반으로 살아온 원주민 Dharug 부족 내 한 씨족) 원주민 여성 루시 심슨(Lucy Simpson)씨가 캔버라 유리 공예가들과 협업한 작품이 함께 전시돼 양국의

공예를 감상할 수 있다.

옷나무가 자생하는 한국은 품질 좋은 옷을 채취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옷칠은 아름다운 색채와 매끈한 광택, 뛰어난 보존력을 자랑하며 한국에서는 2,000년 전부터 금속, 도자기, 가죽, 종이, 나무 등 각 재료의 특성에 맞게 옷칠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 전시와 관련, 윤선민 문화원장은 "한국의 전통 공예를 널리 알리고 양국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옷칠

은 우리의 역사와 예술을 담은 소중한 유산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호주 관객들이 한국의 전통과 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유승희 관장은 "옷칠 전시는 2021년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의 소장품 테마전의 일환으로 기획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한 뒤 "박물관 소장품인 옷칠로 마감된 일상의 용품들이 오랜 시간을 머금은 채 아름답게

빛나며 전시장을 밝혔고, 전통 옷칠 기법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구현한 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서로 어우러져 우리나라 옷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한 전시였다"면서 "한국 고유의 옷칠 문화를 토대로 전통과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시드니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이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 예술기관들과 함께 한국의 우수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해외에 소개하는 '트래블링 코리아 아트(Travelling Korean Art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전시회 개요

▲ 자연의 빛, 옷칠 전시회

-장소 : 주시드니한국문화원 갤러리

-기간 : 2024년 3월 22일~6월 21일(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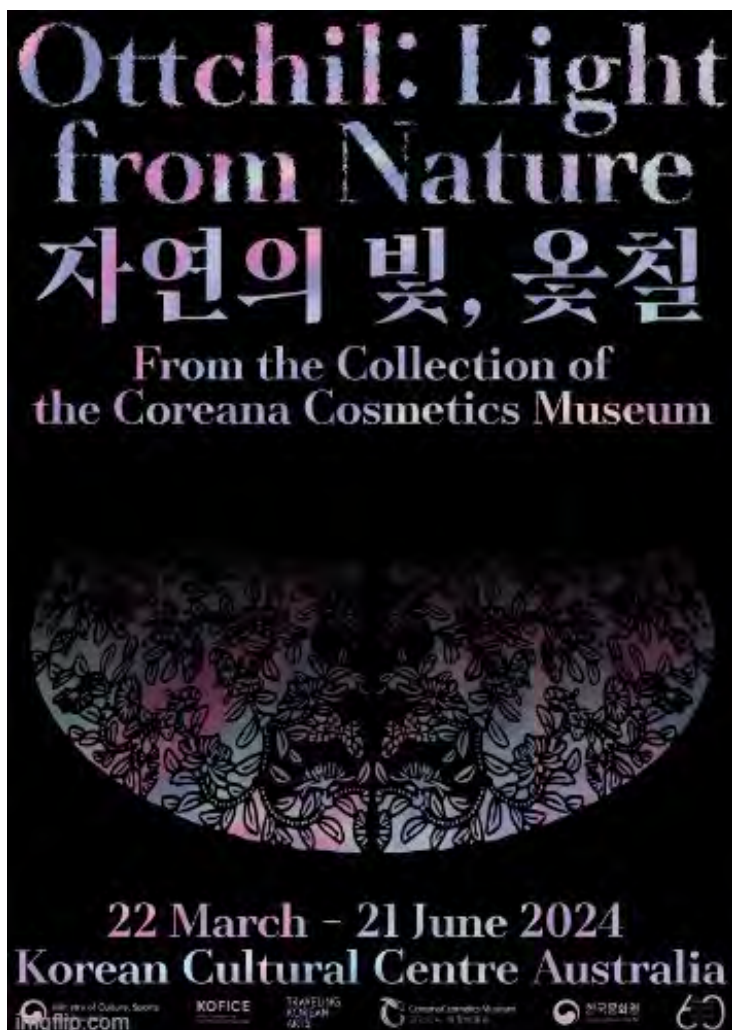
-누리집 주소: <https://koreanculture.org.au/ottchil-light-from-nature/>

▲ 자연의 빛: 김동완, 루시 심슨

-장소 : 호주디자인센터 (101-115 William Street, Darlinghurst)

-기간 : 2024년 3월 22일~6월 1일(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누리집 주소: <https://koreanculture.org.au/ottchil-light-from-nature/>



시드니한국문화원의 '자연의 빛, 옷칠'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 사진: 한국문화원 제공



우리 선조들은 약 2,000년 전부터 옷나무에서 옷을 채취, 다양한 재료의 특성에 맞는 옷칠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사진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박성열 작가의 '본연 ott-017, 옷칠, 2020'. 사진: 한국문화원 제공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Property & BUSINESS

FIELD & URBANITE
집 사기 좋은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Jenny 0403 316 467



22 MARCH 2024 1579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AMP 연구원의 '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자료 분석, '하락' 가능성 없어



호주 부동산연구원(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데이터를 기반으로 AMP은행 셰인 올리버(Shane Oliver) 연구원이 분석한 주요 도시 주택가격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29%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신규 주거단지. 사진: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처

현재 호주는 심각한 주택위기를 겪고 있다. 빠른 인구 성장에 비해 신규 주택 건설은 극히 부진하며, 이로 인해 임대 공실률도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호주의 주택가격은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아진 것일까. 이에 대한 최근 분석을 보면, 호주 각 대도시 주택가격은 분명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이것이 '공정한 가치' (fair value)라고 간주되는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적정한 시장가치 이상으로 치솟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락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AMP 수석 경제학자인 셰인 올리버(Shane Oliver) 박사가 '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호주 전역의 주택가격은 29%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분석 결과 호주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시드니의 경우, 그 가치는 33% 이상 높았다. 이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코어로직' (CoreLogic) 수치를 기준으로 중간 주택가격이 약 45만

8,000달러 하락해야 공정한 가치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드니에 이어 과대평가된 도시는 브리즈번(Brisbane)과 캔버라(Canberra)로 각 33.5%, 31.1%에 달했으며, 애들레이드(Adelaide, 26.9%)와 멜번(Melbourne, 25.9%)이 뒤를 이었다. 퍼스(Perth)의 경우에는 중간가격이 8.8%만 하락해도 적정가치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리버 박사는 다윈(Darwin)과 호바트(Hobart)의 경우 1983년

이후의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두 도시를 제외한 가운데 각 주 수도의 평균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비교했다. 당시(1983년) 호주 전국 중간 주택가격은 6만9,569달러였으며 평균 임대료는 주(per week) 약 100달러였다. 이는 매년 주택가격의 약 8%를 임대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치이다.

반면 현재 호주 각 도시의 중간 주택가격은 109만1,938달러에 달하며 평균 임대료는 주 574달러이다. 이는 주택가격의 2.7%에 불과한 임대료에 해당된다.

올리버 박사는 이 수치가 주식 수익 비율(price-earnings ratio for shares)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하나의 가이드일 뿐이며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완벽한 척도는 없지만 주식시장의 핵심 접근방식은 주가를 기본 수익과 비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경우 수익은 없지만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용 부동산이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든 해당 건물에서 여전히 임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올리버 박사는 "가치 평가가 더욱 확대되면 심각한 경기침체나 (해외에서의) 갑작스런 이민자 감소 등이 닥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는 경고를 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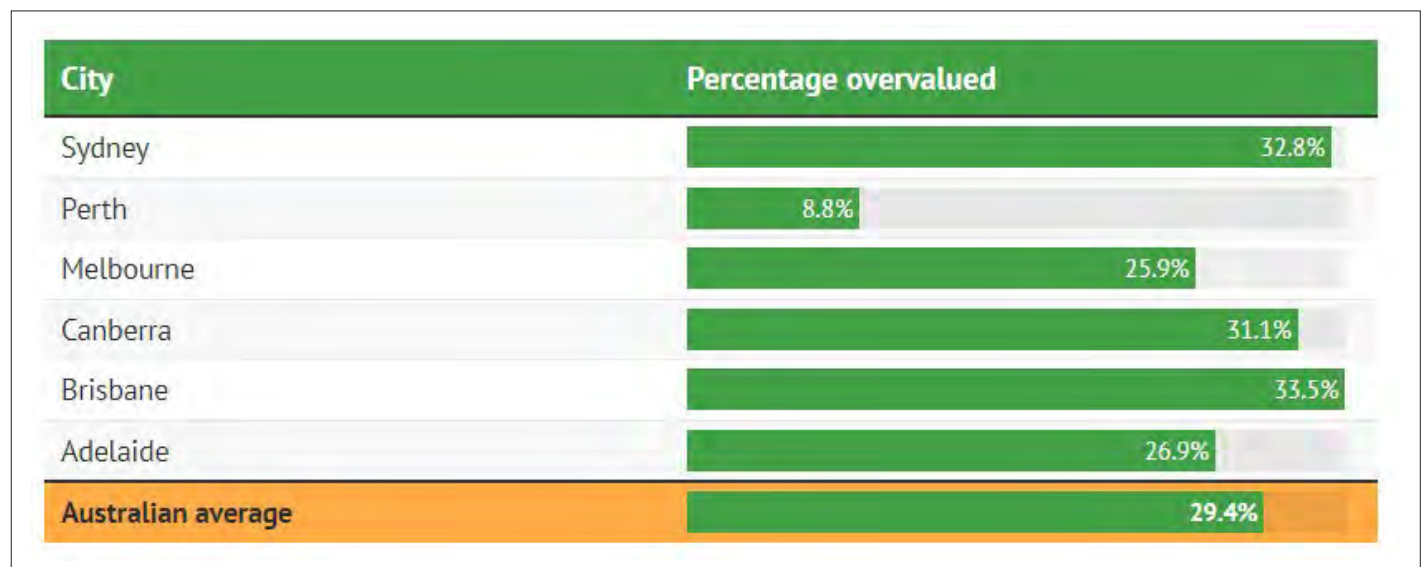
하지만 올리버 박사는 특히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올리버 박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이 잘못된 여지는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 한편 올리버 박사는 만약 더 높은 금리 인상, 더딘 이자율 인하, 여기에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주택가격이 공정한 가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적(?)이 일어나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5년 사이 120만 채의 신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면 공급과잉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리버 박사는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임대수익보다 자본 성장(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주택가격 상승)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부동산 과대평가가 실제로 그들(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1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다윈(Darwin)과 호바트(Hobart)를 제외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과대평가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AMP, 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가격이 부풀려 있는 상태이지만 인구성장과 신규 공급 부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안에 적정가치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캡처

▶17면에서 이어받음

웨스트팩(Westpac) 은행 매튜 하산(Matthew Hassan) 선임연구원은 올리버 박사의 이번 분석에 대해 호주 투자자들이 강한 자본 이득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임대료를 단독주택 가격뿐 아니라 유닛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드니와 멜번 임대시장은 유닛 중심이 지배적이며, 지난 10년 사이 유닛가격은 단독주택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면서 “임대료가 유닛 가격과 보조를 맞추어 왔기에 유닛 시장은 실제로 과대평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 국내경제 책임자인 가레스 에어드(Gareth Aird) 연구원은 ‘과대평가’라는 것이 주택시장에서도 ‘강력한 용어’였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너무 비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는 그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에어드 연구원은 현금 투자자들이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자본 이득뿐 아니라 임대수익, 특히 현재의 주택위기로 인해 임대료 상승을 누리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이 그림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올리버 박사는 호주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사상 최고 수준의 금리인하로 2000년대 초반부터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예측이 오랫동안 있어 왔음을 상기하면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가끔 가격 하락을 보였지만 금리가 다시 인하되고 부동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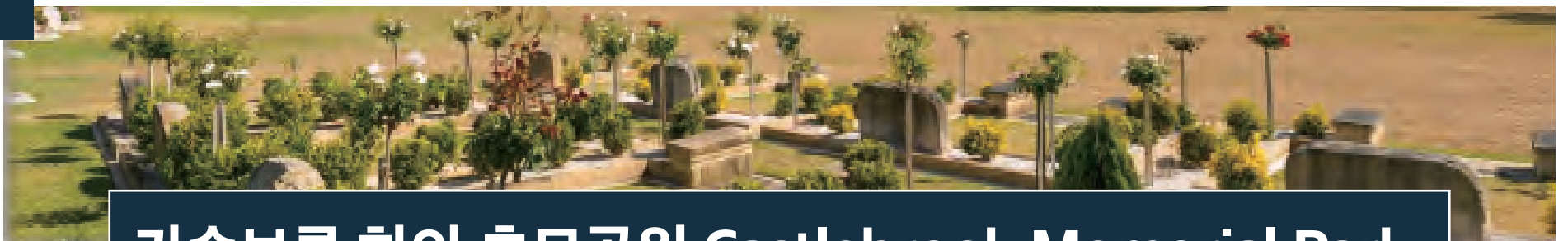
장이 호황을 누리거나 매우 강한 인구성장(이민자 급증)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주택시장 성장을 가속화했지만 그 단점보다 이점이 컸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민자 수용을 너무 감축하면 주택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올리버 박사에 따르면 이것이 가격을 낮추게 한 주요 요인이었다. 이어 그는 “(주택부족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더 많은 주택, 더 저렴한 주거용 부동산을 공급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그 일부는 밀도가 높은 도시화여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Castlebrook Memorial Park

구입 후 관리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PROMOTION

3월 말까지! 신년 특별 프로모션
1개 \$3500 | 2개 \$3000/Each

가족 화장묘 (2인, 4인 가능)
from \$37,000 / 카슬브룩

수목장 2인 전망 좋은 자리
\$12,000

가족묘 4인자리 (매장 화장 다 가능)
\$74,500

일반 매장 자리 (위 아래 2사람 사용)
\$10,210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NO 관리비

* 20프로 디파짓에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할부가능

상담 문의

홍지윤 Sue Hong
0450 396 337



카슬브룩 (라우즈힐역 맞은편)
Castlebrook

블랙타운
Blacktown

채스우드
Chatswood

리버풀
Liverpool



PROJECT MARKETING
HOUSE AND LAND PACKAGE
SALES AND AUCTION
PROPERTY MANAGEMENT

Where Dreams
Come Home

02 9884 7811
503, 7 Railway st, Chatswood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을 고민 중 이십니까? 제니에게 연락주세요! 0403 316 467

멕콰리 팍 (1 - 3 bedrooms) 완공된 고급 아파트

BIG SALE | 3월 한달간
특별 프로모션



Price : 1 Bed : \$677k~

2 Bed : \$940k~

박스힐 완공된 고급 타운하우스 (4 Bedrooms)



NEW

3월 한달 간 특별 프로모션 (두 가지 옵션)

- 1) 10% 디스카운트
- 2) 8% 디스카운트와 5% rental guarantees for 2 years

Price : \$1.1mils~

22/40-50 Union Rd Penrith NSW 2750



Under Contract!!

- 북층으로 이루어진 펜리스 중심가 아파트
- 역과 쇼핑센터는 물론 공항과 학교가 근접해 있어 무척 편리
- 관리비가 싸서 투자하거나 거주하기에 적합

Price : \$569,000 - \$599,000

SOLD

1106/...ckyard Bvd, Lidcombe 2141
🛏️ 3 🛎️ 2 🚗 1 (3/2/1)

- 올림픽 팍에 위치한 방 3개의 깔끔한 아파트
- 공원과 기차역, 버스정류장과 많은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가까이에 위치
- 아파트 출입문 바로 옆에 공원처럼 꾸며진 바비큐 공간

SOLD

412/18...way St, Lidcombe NSW 2141
🛏️ 2 🛎️ 2 🚗 1

- 거의 새 것같은 햇살이 가득한 북향의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
- 올림픽 팍과 골프장, 쇼핑센터와 상점들이 근접거리에 있어 렌트가 잘 나가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닛
- 한인들의 중심지인 리드컴에서도 중심가인 곳에 위치

SOLD

2/2...er St, Ryde NSW 2112
🛏️ 1 🛎️ 1 🚗 1

- 역과 학교, 강가와 상점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꿈의 터전
- 79 sm2의 사이즈가 큰 방 1개와 2nd room 사이즈의 스테디, 널찍한 발코니
- 첫주택구매자가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렌트가 잘되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닛

SOLD

323/... Koorine St, Ermington
🛏️ 1 🛎️ 1 🚗 2

- Water Front, 공원, 산책코스로 이어지는 고급 힐링 주거 공간
- Total 129m2, internal 88m2로 2bed 보다 더 큰 공간
- 2개의 주차공간이 있어 2대 차를 보유한 커플과 가족에게 최상의 기회



Jenny Cho
Licenced Agent/LREA 20134299

Mob: 0403 316 467

Email: jenny.fieldandurbanite@gmail.com

FIELD & URBANITE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Property Exchange Australia' 조사... 2022년 대비 1.5%(19억 달러) 증가

지난해 NSW,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서 매매된 주거용 부동산 4개 중 1개 이상이 전액 현금 지불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부동산 판매를 통해 재정을 확보한 이들의 현금 거래는 금리상승에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써 견고한 주택시장을 지탱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perty Exchange Australia' (PEX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동부 주에서는 4,547억 달러 상당의 주거용 부동산이 매매됐으며, 이 가운데 1,296억 달러의 주택이 현금으로 거래됐다. 즉 주거용 부동산 구입 비용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mortgage)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3개 주에서 거래된 전체 부동산의 28.5%가 모기지 없이 거래됐음을 의미하며 또한 전년 대비 2022년의 현금 거래 규모에 비해 1.5% 증가(19억 달러)한 수치이다.

PEXA의 수석 경제학자 줄리 토스(Julie Toth) 연구원은 "모기지 압박 없이,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에 전혀 취약하지 않은 재정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금구매 비율은 부동산 시장 회복력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지난해 3개 주의 현금 거래 부동산 수를 조사한 'Property Exchange Australia'(PEXA)의 줄리 토스(Julie Toth) 수석 경제학자. 그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금거래는 부동산 시장 회복력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 : LinkedIn / Julie Toth



2023년 한 해 동안 NSW, 빅토리아(Victoria) 및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서 거래된 주거용 부동산 4개 중 한 개 이상이 담보대출 없이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 인근의 주택가.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캡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화한 지난 3~4년 동안 현금구매 그룹은 세 지역(NSW, VIC, QLD)의 주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최소 25%를 차지했다"는 토스 연구원은 "이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여 이어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압박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구매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토스 연구원은 금리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PEXA의 조사 보고서는 호주 중앙은행(RBA)의 잇따른 이자율 인상을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높은 기준금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많고 은퇴한 현금구매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이 제공하는 더 높은 저축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토스 연구원의 말이다.

이어 그녀는 "이들(현금구매자)

은 가계소득이 낮은 경향도 있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다음 구매 자금으로 축적된 재정, 저축, 연금 등 '여유 있는 자산가' (asset-rich)일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호주 인구 통계를 볼 때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기에 현금구매도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현금 구매자 비율, QLD 주에서 가장 높아

지난해 거래된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현금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퀸즐랜드로 전체 주택매매 가운데 29.6%에 달했으며 NSW(27.7%), 빅토리아(25.2%) 순이었다.

반면 NSW는 현금구매의 총 가치가 가장 높았다. NSW에서 모기지 없이 거래된 주택의 중간가격은 77만 달러로 조사됐으며, 빅토리아 60만4,500달러, 퀸즐랜드는 57만 달러였다.

토스 연구원은 NSW 데이터를 통해 "시드니가 호주 전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임을 확인했다"면서 "현금구매 비율이 낮더라도 크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총 가치는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현금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은퇴를 앞둔 노년층에게 인기 있는 지역,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외지역이었다.

브리즈번(Brisbane)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거리에 있는 타라(Tara)에서는 지난해 매매된 부동산의 86%가 현금으로 거래됐다. 인구 약 2천 명의 시골 타운인 타라의 현재 중간 주택가격은 8만2,500

달러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PEXA의 이 현금구매 데이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80건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우편번호 지역을 포함했다.

또한 퀸즐랜드 모어턴 베이(Moreton Bay)에 있는 러셀 아일랜드(Russell Island)는 2023년 거래된 부동산의 70%가 현금으로 지불됐다. 이 지역의 중간 주택가격 또한 타라와 비슷한 8만5,000달러이다.

여러 부동산 특성으로 도시의 현금거래 증가

퀸즐랜드 지방 타운의 저렴한 부동산과 달리 대도시 지역은 크게 치솟은 주택가격과 보다 많은 거래 건수로 인해 현금구매 총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골드코스트의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 Gold Coast)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매매에서 14억 달러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도시에서 현금으로 지불된 매매 주택 중간가격은 80만 달러였다.

골드코스트 시의회에 따르면, 이 도시의 최고 인기 지역인 서퍼스 파라다이스에는 거의 2만 채의 유닛, 아파트, 타운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다.

PEXA 보고서는 "이들 대도시 우편번호 지역의 현금 구매자는 매우 다양했으며 소유자 점유와 투자자(국내 및 해외)를 포함해 다양한 가격대에서 여러 부동산 유형을 구매한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퀸즐랜드와 마찬가지로 멜번(Melbourne)은 지난해 13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통한 주택매매를 기록했지만 서퍼스 파라다이스와 비교했을 때 현금으로 지불된 주택의 중간가격은 60만3,500달러로 더 낮았다.

토스 연구원에 따르면 현금구매 시장에서 빅토리아 주의 성과는 다른 주에 비해 빈 토지 구매 비중이 높기에 다소 왜곡되었다. 그녀는 "구매자들은 나중에 건축할 주택과 토지 패키지를 준비하고자 비어 있는 부지를 구입하는 이들"이라며 "반면 퀸즐랜드에서는 이미 지어진 주택에 더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2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ABC SEAMLESS \$

거터(Gutter, 지붕 홈통) 전문 할인점
거터에 관한 모든 것, 저희에게 맡기세요!!!

2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
월등한 가격 경쟁력

지붕 홈통(Roof gutter), 처마(Leafguard),
금속제 지붕(Metal Roofs) 및 지붕 보수

무료견적 **TEL: 02 9748 3022**

WEB: www.abcseamless.com.au | E-MAIL: abc@abcseamless.com.au

20% 할인!

▶ 20면에서 이어받음

골드코스트 카운슬의 대런 테일러(Darren Taylor) 시 의원은 “COVID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글리터 스트립’ (Glitter Strip. 호주인들에게 인기 있는 골드코스트의 해안 주거 지역을 뜻하는 용어. 이는 매과리 사전에도 추가된 새 단어이다)으로의 주간 이주(interstate migration)가 급증했으며 서퍼스 파라다이스의 판매용 주택 공급이 많아 이주자들의 주택구매 선택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골드코스트에는 지난 수년 사이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주(State)에서 온 부동산 투자자가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다운사이저(downsizer)들의 구매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 각 주별 현금구매 상위 10개 교외지역

(Suburb : 현금 거래 비율 / 현금 구매 중간가격)

▲ NSW

- Gloucester : 63.9% / \$530,000
- Laurieton : 57.8% / \$580,000
- Macksville : 55.9% / \$590,000
- Maclean : 54.9% / \$693,750
- Merimbula : 54.7% / \$787,500
- Lake Cathie : 53.3% / \$756,500
- Milsons Point : 52.6% / \$2,500,000
- Narooma : 52.3% / \$802,500
- Bowral : 51.9% / \$1,590,000
- Lismore : 51.8% / \$350,000

▲ QLD

- Tara : 86.0% / \$82,500
- Russell Island : 76.0% / \$85,000
- Gin Gin : 72.3% / \$275,000
- Magnetic Island : 68.2% / \$365,001

- Port Douglas : 66.4% / \$445,000
- Nanango : 65.0% / \$292,500
- Mission Beach : 60.9% / \$307,500
- Ingham : 60.7% / \$188,500
- Childers : 59.6% / \$385,000
- Cooloola Cove : 57.1% / \$555,000

▲ VIC

- Paynesville : 58.0% / \$505,000
- Mansfield : 54.9% / \$715,000
- Maryborough : 54.3% / \$317,500
- Carlton : 52.3% / \$235,000
- Point Lonsdale : 51.9% / \$940,000
- Wonthaggi : 51.8% / \$527,500
- Lakes Entrance : 51.6% / \$390,000
- Melbourne : 50.6% / \$603,500
- Loch Sport : 50.4% / \$234,000
- Inverloch : 48.7% / \$941,000

■ 각 주별 현금구매 기준 상위 10개 교외지역

(Suburb : 현금구매 총액-\$m / 현금 거래 주택 수 / 현금구매 중간 가격)

▲ NSW

- Marsden Park : \$971.9 / 724 / \$675,000
- Mosman : \$944.2 / 223 / \$2,900,000
- St Leonards : \$789.3 / 474 / \$1,400,000
- Sydney : \$709.2 / 347 / \$1,235,000
- Darling Point : \$703.3 / 84 / \$3,350,000
- Bellevue Hill : \$660.1 / 80 / \$3,625,000
- Bondi Beach : \$620.9 / 179 /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주의 가격대별 현금구매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단위- billion). Source: PEXA

▲ VIC

- Melbourne : \$1,323.6 / 1,697 / \$603,500
- Toorak : \$641.2 / 159 / \$2,300,000
- Brighton : \$614.4 / 247 / \$2,018,000
- Craigieburn : \$499.8 / 873 / \$340,000
- South Yarra : \$473.6 / 331 / \$746,500
- Kew : \$466.6 / 209 / \$1,675,000
- Hawthorn : \$445.9 / 286 / \$779,500
- Glen Waverley : \$426.0 / 260 / \$1,544,000
- Tarneit : \$350.5 / 691 / \$390,000
- Southbank : \$347.1 / 424 / \$618,750

▲ QLD


- Surfers Paradise : \$1,427.7 / 1,232 / \$800,000
- Broadbeach : \$1,198.0 / 785 / \$1,100,000
- Caloundra : \$737.5 / 798 / \$762,950
- Hope Island : \$710.9 / 490 / \$1,055,900
- Hervey Bay : \$658.8 / 1,056 / \$565,000
- Runaway Bay : \$594.5 / 545 / \$830,000
- Brisbane City : \$557.4 / 577 / \$702,000
- Burleigh Heads : \$533.7 / 437 / \$970,000
- Coolum Beach : \$526.1 / 306 / \$1,122,500
- Southport : \$491.4 / 620 / \$695,000

- Melbourne : \$1,323.6 / 1,697 / \$603,500
- Toorak : \$641.2 / 159 / \$2,300,000
- Brighton : \$614.4 / 247 / \$2,018,000
- Craigieburn : \$499.8 / 873 / \$340,000
- South Yarra : \$473.6 / 331 / \$746,500
- Kew : \$466.6 / 209 / \$1,675,000
- Hawthorn : \$445.9 / 286 / \$779,500
- Glen Waverley : \$426.0 / 260 / \$1,544,000
- Tarneit : \$350.5 / 691 / \$390,000
- Southbank : \$347.1 / 424 / \$618,750

Source: PEXA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HOME LOAN CENTRE

LoanCare Homeloans



M-326343

이자율 비교!

정확한 조언!

빠른 승인!

필요할 때
힘이되는
융자전문가

01 주택융자 up to 95%

03 Private Lending
(2nd Mortgage도 가능)
\$50,000~\$3M까지

05 Lo Doc (No Tax Return)
up to \$2.5M

02 자동차 & 장비
어디서 사든 가능

04 상업건물 up to 75%
(Lo Doc 70%)

06 Business & Construction Loan

M. 0421 578 822 E. linaleeau@gmail.com

8A, 38 Rowe St, Eastwood DIRECTOR: Lina(Sang Rye) LEE

Best choice for entertainment

iNSIDE Magazine

22 March 2024

정부 물가연동에 의해 복지수당 인상... A3면

재정부 장관, 복지 프레임워크 포함... 자금 사용 아닌... A4면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PRRT보다 HECS로 더 많은 비용 거둬, 정책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 지적



공공정책 싱크탱크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 대표인 리처드 데니스(Richard Dennis, 사진) 박사. 그는 최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정부가 석유자원 임대세(PRRT)를 징수하는 것보다 대학 학자금 용자인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HECS) 상황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PRRT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The Australia Institute

“정부는 석유자원 임대세를 징수하는 것보다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HECS)에 따른 학자금 용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캔버라(Canberra) 기반의 공공정책 싱크탱크 'The Australia Institute' 대표인 리처드 데니스(Richard Dennis) 박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수입을 늘리고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니스 박사는 최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에서 “노르웨이 화석연료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학생들에게는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며 “호주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

게는 대학 진학에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 2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석유자원 임대세(PRRT)는 연방 해역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현행 제도를 보면, 기업은 특정 비용을 공제하고 손실을 미래 소득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사진 : Woodside Energy

▶ 22면에서 이어받음

그의 말은 정부가 석유자원 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PRRT) 수익보다 고등교육 기부 제도인 HECS에서 매년 더 많은 상환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 ABC 방송은 최근의 'Fact Check' 프로그램을 통해 데니스 박사의 지적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이 내놓은 연간 세금징수 데이터에 따르면 HECS 및 관련 학자금 대출 상황은 PRRT에서 거둬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정부에 제공한다.

2022-23년 PRRT 징수액은 총 23억 달러였다. 반면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49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HECS를 이용해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직장에서 연간 5만1,550 달러의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이 비용을 분할 상환한다. 소득이 높으면 한 번에 상환하는 비용도 높아진다. HECS 상환액은 전염병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 회계연도뿐 아니라 최소 지난 3년 동안 PRRT 징수액 수치를 넘어섰다.

정부 예산 예측을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황은 2023-24년부터 향후 4년 동안 예상보다 낮은 가스 로열티 수익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PRRT의 경우,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부터 연방 및 주 정부 금고, 나아가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2022-23년, 퀸즐랜드(Queensland)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에서 거둬들이는 석유 및 가스 로열티는 약 37억 달러였다.

▲ PRRT는 무엇? = 석유자원 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는 호주 연방 해역의 석유(petroleum, oil) 및 가스 프로젝트에 부과하는 연방 세금이다. PRRT는 가공하지 않은 원유(stabilised crude oil), 액화천연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에탄, 셰일 오일 등의 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이익에

만 적용된다. 기타 광물, 철광석, 석탄은 이 세 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석유 자원을 통한 이익에는 40%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기업은 특정 비용을 공제하고 손실을 미래 소득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PRRT에 대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붕괴된'(broken) 세금으로 분류하는 반면, 이에 대한 독립 검토에서는 가스보다는 석유 프로젝트에 과세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 HECS는 =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은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정부 지원으로 학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989년 도입한 정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다.

대학 학비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정해진 기준 소득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1989년 이후 대학 자금지원 변경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소득 조건부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지금은 폐지된 학생 재정지원 제도(Student Financial Supplement Scheme. SFSS)가 있었다. 2003년 12월 종료된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학생이 복지혜택 1달러를 학자금 대출 2달러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기존 대출제도는 이제 정부의 고등교육 대출 프로세스, 즉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에 속하게 됐다. 여기에는 2005년 HECS-HELP가 된 HECS가 포함된다.

HELP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연방정부 지원(정부 보조금인 HECS-HELP, 학비 대출인 FEE-HELP, 학생 서비스 및 편의시설 비용 지원인 SA-HELP, 숙박이나 여행 등 유 학비용을 지원하는 OS-HELP)가 그것이다.

이들 모든 대출은 무이자이지만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의해

연동(indexed)되며, 과세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된다. 2023-24 회계연도, 모든 HELP 이용자의 의무 상환기준 소득은 5만 1,550달러이다.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데니스 박사는 HECS를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호주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용어라고 말했다.

▲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배경 =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 대변인은 데니스 박사가 언급한 수치(HECS를 통해 거둔 수익이 PRRT보다 많다는)에 대해 ATO의 2022-23년 연례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2022-23년을 포함한 이전 3년 동안 HELP/SFSS와 PRRT 순 세금 징수(net tax cash collections) 데이터를 제공한다.

SFSS 대출은 전체 학생 학자금 부채의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의 예산 중간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SFSS 대출 추정액은 2억 2,040만 달러였다. 반면 HELP 부채는 약 467억 달러에 달한다. ATO의 별도 2022-23 HELP 통계 데이터는 또한 대출 유형별로 더 이상 분류되지 않는 모든 HELP 관련 부채 상환에 대한 총액을 알려준다.

PRRT 수치와 관련하여 ATO는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금액이 법인세 정보보고서 등 다른 간행물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례보고서 수치에 수정된 세금평가 및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HECS와 PRRT는 어떻게 비교되나 = ATO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PRRT 징수액은 2022-23년 총 23억 달러였다. 이는 같은 회계연도, HELP/SFSS 상환액 49억 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 HELP/SFSS 상환액은 또한 그 이전, 최소 2년 동안 PRRT 징수액을 능가했으며, 두 범주 모두에서 정부 수익은 계속 증가했다.

학생 상환액은 2020-21년 총 38억 달러, 2021-22년 43억 달러인 반면 PRRT 수익은 2020-21년 7억 8,600만 달러, 2021-22년에는 16억 달러에 불과했다. 전염병 대유행 발생 직전인 2018-19년 상황도 이와 유사했다.

▲ 유효한 비교인가 = 전문가들은 HECS와 PRRT가 하나는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기에 완전히 같지 않다고 말한다. 멜번대학교 경제학자인 존 프리번(John Freebairn) 교수는 "각각의 목적과 목표는 매우 다르다"면서 "다만 두 경우 모두 징수한 수입은 정부용도 전반에 걸쳐 지출을 고려하기 위한 통합 수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HECS 시스템 설계에 기여한 호주국립대학교(ANU) 브루스 채프먼(Bruce Chapman) 교수는 HECS에 대해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누군가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며 "세금 시스템을 통해 상환되는 학자금 대출"이라며 "그러나 이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 2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가족력, 고혈압 예고장 받으셨나요?

‘고혈압’ 가족력 있으면 젊을 때부터 예방과 치료 반드시 필요

가족력이란 조부모, 부모, 형제 등 3대에 걸친 직계가족 혹은 사촌 이내에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족력이 높은 질병들은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식생활과 주거환경, 사고방식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발병하는 성향이 있으며 조기 진단을 통해 예방하거나 발병시기를 늦출 수 있다. 가족력은 일종의 ‘질병 예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혈압은 대표적인 가족력 질환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가족력 있는 경우, 고혈압 발병 위험 4배까지 높아져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률이 4배까지 높아진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비슷한 연령의 성인 중 고혈압(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환자 342명과 정상 혈압을 가진 342명을 선정해 면대면 인터뷰를 거쳐 가족력, 당뇨, 음주습관, 운동습관 등 위험인자들과 고혈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당뇨병 이력이 있을 경우 고혈압 발생이 4.2배,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발병률이 4.1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활습관이 좋지 않을 경우 고혈압 발병위험은 더욱 높아지는데, 가족력이 있고 흡연을 하는 경우 5.5배, 가족력이 있고 음주습관이 있는 경우 고혈압 위험이 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력은 고혈압 발병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병원 손정식 교수팀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828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가족력과 실제 고혈압 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이 비해 고혈압 유병률이 2.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팀은 가족력이 있는 그룹과 가족력이 없는 그룹으로 분류한 뒤 실제 고혈압 유병률을 확인했는데, 전체 참여자의 43.8%가 고혈압 가족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의 실제 고혈압 유병률은 25.4%였다. 즉, 고혈압 가족력을 가진 사람들 4명 중 1명은 고혈압에 걸린다는 뜻이다.

■ 젊을 때 시작된 고혈압, 오래될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

고혈압은 더 이상 노인질환이 아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9세 성인들의 고혈압 유병자가 약 127만명에 이르며 고혈압 바로 전 단계의 추정인구도 약 340만명에 이른다. 특히 젊은 고혈압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20~30대 고혈압 환자들의 고혈압 인지율은 17.4%에 머물고 있으며, 치료율은 1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젊은 고혈압 인구 5명 중 1명은 자신이 고혈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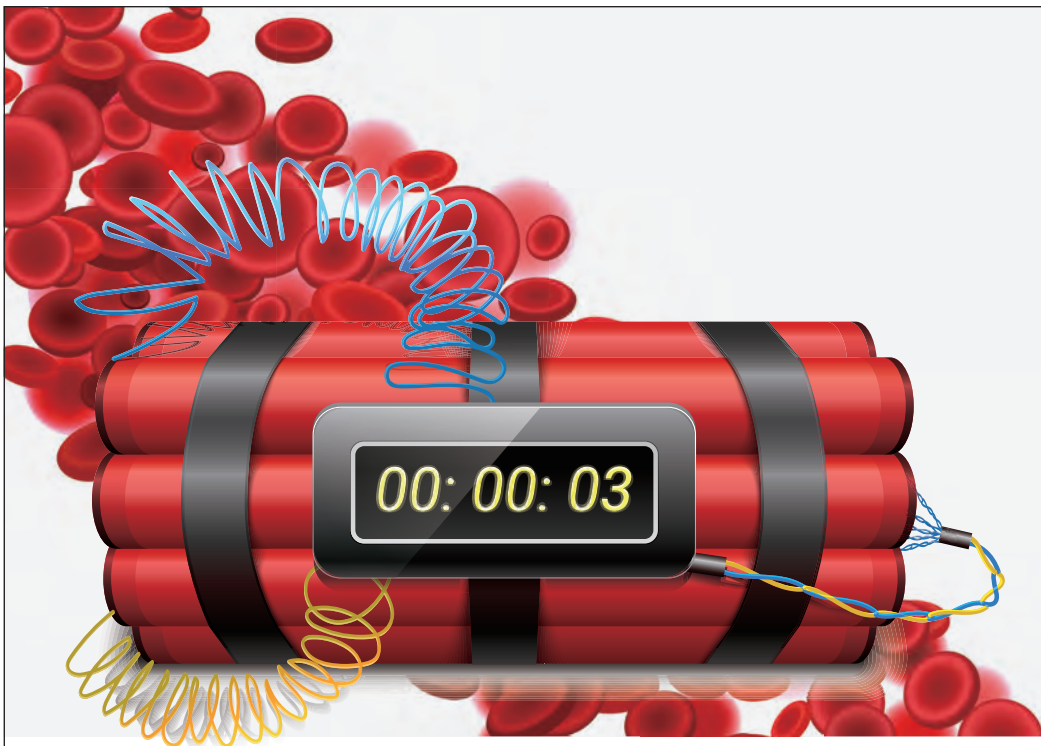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뜻이고, 이들의 혈관은 젊을 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 높은 혈압에 노출됨으로써 심장과 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확률이 매우 커진다.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30대 남녀 약 249만명을 10년간 분석한 결과,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의 고혈압 환자들은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남녀 각각 76%와 85% 높아졌으며, 고혈압 전단계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남자는 25%, 여자는 27%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을 때부터 시작된 고혈압의 영향은 치매 발병률도 높인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마힌라드(Mahinrad)박사팀은 평균 24세의 성인 191명을 대상으로 3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젊은 시절부터 오랜 시간 고혈압을 앓아온 사람일수록 50대에 이르러 보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기억력과 인지기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힌라드 박사는 논문을 통해 “비록 치료기준에 못 미치는 전 단계의 고혈압이라고 하더라도 만성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고혈압은 중년 이후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젊을 때부터 혈압을 관리하고 고혈압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 7대 생활 수칙

- 1) 음식을 싱겁게 먹습니다.
- 2)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3) 과일과 채소를 섭취합니다.
- 4)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 5) 금연합니다.
- 6) 절주합니다.
- 7)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검진합니다.



돌연사 부르는 혈관 시한폭탄

쿠바산 폴리코사놀,
혈압·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

평소 특별한 병세를 보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 했다는 이야기나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돌연사란 증상이 발생한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급성심장정지 라고도 하며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어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119 구급대 이송 건수를 기준으로 한 해 돌연사 인구는 약 3만여명, 그중 40-50대가 20%정도를 차지한다. 돌연사는 심근경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근에 고사가 일어나는 질환을 말한다. 심근경색은 초기 사망률이 약 30%에 달하며, 사망환자의 50%이상은 병원에 내원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중년 돌연사가 많은 이유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심근경색 환자수는 12만 7천여명으로 60대 이상의 환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60대 미만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40-60대 중년기에 환자수가 급증하기 때문인데, 이 시기는 동맥경화가 본격적인 혈관질환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남성의 경우, 40대 심근경색 환자수는 약 9천8백명이었다가 50대가 되면 2만 6천여명으로 늘어나고, 60대에는 가장 많은 3만4천여명을 기록했다.

심근경색증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혈관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 내부 직경이 좁아지면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혈류에 장애가 초래되면 협심증이 되고, 떨어져 나온 혈전(피떡)이 좁아져 있던 혈관을 완전히 막으면 심근경색증이 된다.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은 그 원인이 동맥경화라는 점에서 같은 뿌리를 가진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협심증 환자수는 약 70만 명으로 협심증도 중년기에 그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협심증 환자수가 30대~50대에 걸쳐 각 10년 단위로 3배씩 증가하는데, 30대에는 8천여명, 40대 2만7천명, 50대 8만2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60대에는 환자수가 약 15만명에 달했다.

■ 젊어도 안심할 수 없다

20~30대라도 LDL콜레스테롤 130이상이면 심근경색 위험 높아져

20-30대 젊은이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진다. 이승환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김미경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에서 당뇨병이 없는 20-39세의 젊은 성인 약 620만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농도와 심뇌혈관질환 위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이상이 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일 때 심혈관질환과 심근경색 위험이 각각 1.69배와 1.98배 더 높아졌다. LDL콜레스테롤의 경우 130mg/dL 이상부터 심혈관질환 및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LDL콜레스테롤 150mg/dL 이상일 때 심혈관질환 및 심근경색 위험은 각각 1.6배와 1.82배 더 높아졌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라도 비만·고혈압·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달라졌는데, 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그룹에서 위험인자 0개일 때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1.18배인 반면, 위험인자 1개는 1.80배, 위험인자 2개는 2.06배까지 높아졌다. LDL콜레스테롤 150mg/dL 이상 그룹 중 위험인자가 0개인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1.28배, 1개는 1.55배, 2개는 1.83배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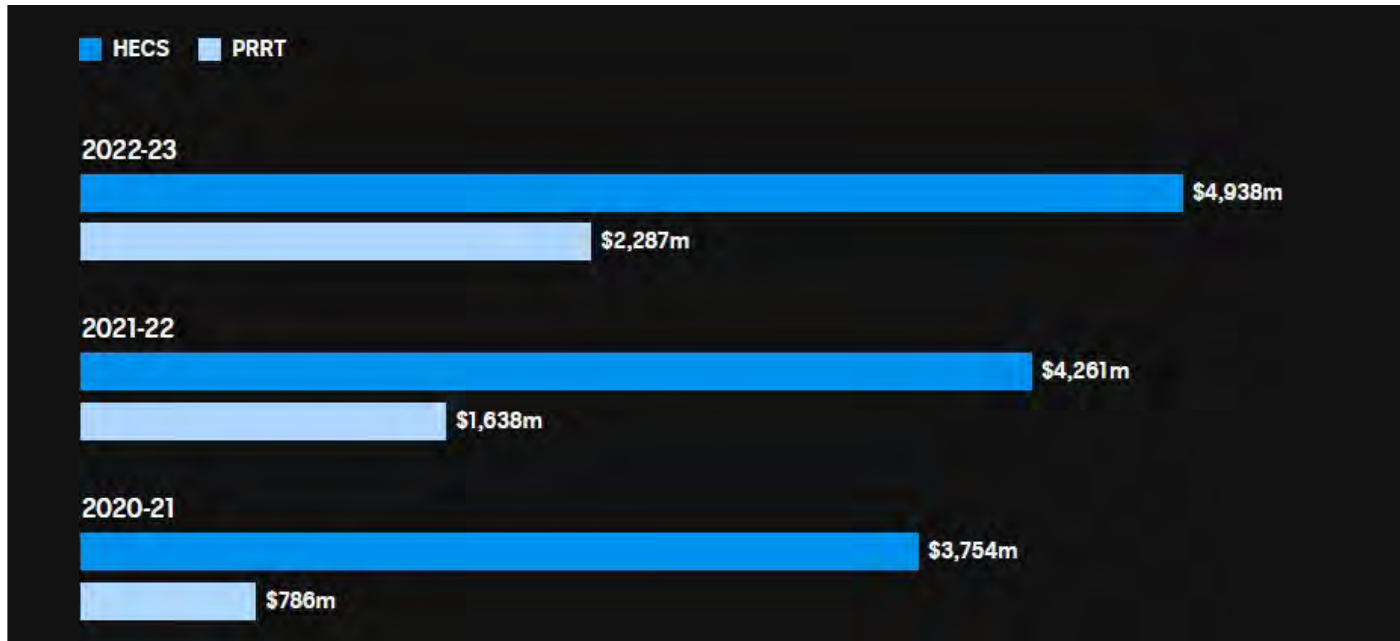
■ 돌연사 부르는 혈관 속 빌런들 - 콜레스테롤 & 고혈압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은 돌연사를 부르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이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혈관내막에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압을 높이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통해 세포와 조직에 전달되는데, 이 때 LDL과 HDL이라는 특수한 운반체를 타고 이동한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곳에 실어 나르는 수송트럭과 같은 역할을 하고, HDL은 사용하고 남거나 혹은 혈관내막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치우는 청소트럭과 같은 역할을 한다. LDL은 크기가 커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실어날라 수 있지만 산화에 매우 취약하다. 콜레스테롤을 잔뜩 실은 채로 산화된 LDL은 혈관 내막으로 들어가 백혈구의 먹이가 되고, 콜레스테롤은 혈관내막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콜레스테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플라크가 만들어지고,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딱딱해진다. 좁은 혈관을 통해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심장은 더욱 무리를 해서 펌프질을 해야 하고 혈압은 높아진다.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혈관벽을 계속 높은 압력으로 자극하면 혈관은 손상을 입게 되고 상처부위에는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어 쌓이게 된다. 이로써 혈관은 더 좁아지고, 혈압은 높아지는 등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 혈관건강에 도움되는 예방법은?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염분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고, 주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재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조절의 2중 기능성을 모두 인정받은 원료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유일하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을 매일 20mg씩 4주간 섭취했을 때 HDL수치는 29.9% 상승했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결과, 20mg을 12주간 섭취했을 때 수축기혈압이 7.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온 폴리코사놀 제품들의 경우 한국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거나,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입 전 식약처에서 승인된 제품인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

(편집자주)



정부가 거둬들이는 HECS 상환액 및 PRRT 세금수입 비교. Source: Australian Taxation Office

▶ 23면에서 이어받음

“데니스 박사가 제시한 것처럼 HECS와 PRRT가 ‘합리적인 비교’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기타 세금 및 로열티**= 연방정부는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생산업체 중 하나인 ‘North West Shelf’ 프로젝트의 석유 로열티를 포함해 일부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로부터 기타 세금과 로열티를 징수한다.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또한 연안 해역의 육상 및 해상 광물과 석유 프로젝트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2022-23연도 주 예산 문서를 보면, 퀸즐랜드 주는 석유 로열티로 23억 달러를, 또 서부호주(WA)는 North West Shelf 프로젝트의 로열티에서 약 14억 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멜번대 프리번 교수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직원 임금, 법인 소득세 및 주주 개인세 등으로부터도 소득세 수입을 얻는다. 그런 반면 정부는 대학 교육을 받은 납세자들의 높은 급여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소득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

상된다는 게 프리번 교수의 말이다.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는 “호주는 회사 소득세 등 모든 산업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해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다른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생산소비세, 주 정부 로열티 등 산업에 더 특화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수익은 업계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 적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 **변경 예정**= 지난해 5월 예산안을 앞두고 정부는 해상 LNG로부터 납세자에 대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PRRT 변경 사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가스 프로젝트는 평가 가능한 수입에서 탐사 및 추출비용을 공제하고 손실을 향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은 매년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승’ (uplifted)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제가 누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예산안에서는 “LNG 프로젝트는 매우 자본집

약적이며 일반적으로 석유 프로젝트에 비해 생산을 시작한 이후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특히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큰 이월 공제가 적용되는 LNG 사업에서 징수되는 PRRT에 수년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단 하나의 LNG 프로젝트도 PRRT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많은 사업이 2030년대까지 상당한 금액의 PRRT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변경 사항에는 매년 LNG 프로젝트의 공제액을 평가 가능한 소득의 90% 이하로 제한해 PRRT가 해당 소득의 최소 10%에 대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상한선은 세금 징수를 앞당기고 2022-23년 이후 5년간 24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전문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데이빗 포코크(David Pocock) 상원의원(무소속)은 지난해 8월 한 미디어에서 “

노동당의 PRRT 수정안을 의회에서 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Thanks 대학졸업자들’**= 예상되는 PRRT 변경(더 많은 세금 징수를 위한)에도 최근의 예산 예측을 보면, HECS 상환 납세자들은 가스 로열티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정부 재정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나온 정부의 중반기 경제 및 재정 전망에 따르면 5월 예산 이후의 변화로 인해 “2023-24 회계연도에는 비과세 수입이 3억 달러 증가하고 2026-27년까지 4년 동안에는 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보고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는 연방정부 계좌에 보관된 예금의 이자수익 감소, LNG로열티 관련 수익이 예상보다 낮았다”면서 “비과세 수입 감소는 정부 투자금의 높은 수입과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에 대한 높은 수수료 상환을 통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고 설명했다.

▲ **‘Student debt’가 많은 이유**= ANU의 채프먼 교수에 따르면 HECS는 두 가지 이유로 많은 정부 수익을 만들어낸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이 상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수업료가 지난 2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때문이다.

연방 교육부 대변인도 HELP와 HECS 프로그램이 국내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생 수는 HECS 제도가 도입된 해인 1989년 42만 명에서 2022년에는 110만 명이 됐다.

▶ 2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HECS 프로그램은 1989년 시작되었으며, 이후 대학 입학생은 크게 증가했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전문가들은 HECS와 PRRT가 하나는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기에 완전히 같지 않지만 둘 모두 정부 수입이자 정부에 대한 의무기에 이 두 제도의 비교는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사진: Perth Mint Australia

호주기독교대학 신학과정

평신도를 위한 신학교육

평신도도 신앙성숙을 위해
신학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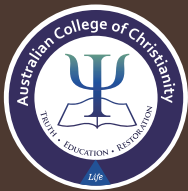
유학생과정. 온라인과정. 로컬과정
3년 혹은 4년, 5년 6개월 비자 가능

- 호주교육부에 인가된 정식학위
- 정부보조 Austudy 가능
- 최고 저렴한 학비 보장과 다양한 장학금지원
- 탁월한 교수진
- 주 하루 교육 (온라인 가능)

전과정 온라인 가능

CHC81015	상담학과 준석사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10741NAT	신학 Cert III*	Certificate III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CHC51015	상담학과 준학사	Diploma Of Counselling	10742NAT	신학 Cert IV*	Certificate IV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CHC43315	정신건강 Cert IV*	Certificate IV In Mental Health*	10743NAT	신학 준학사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CHC42315	교목과 목회돌봄*	Certificate IV In Chaplaincy And Pastoral Care*	10744NAT	신학 고급 준학사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CHC43015	노인돌봄 Cert IV*	Certificate IV in Ageing Support*	CUA51020	영상미디어 준학사	Diploma of Screen and Media
SIS50321	스포츠 준학사	Diploma Of Sport	CUA31020	영상미디어 Cert III*	Certificate III in Screen and Media*
SJS40321	스포츠코칭 Cert IV*	Certificate IV In Sport Coaching*	CUA41220	영상미디어 Cert IV*	Certificate IV in Screen and MrdiaCare*

*표시는 정부생활비보조 어스터디 가능한 학과입니다. 상위과정은 어스터디 가능 코스와 더불어 degree 로 하시면 많은 장학금 적용을 받아서 공부 가능합니다.



Excellence in Christian Education - Truth Education Restoration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ity
호주기독교대학교 RTO 40892 CRICOS 03461B

어스터디 가능
(상담필요)

+61) 2 6255 4597, +61) 402 140 905
www.accu.edu.au, info@accu.edu.au

캠 퍼 스 시드니/캔버라
멜번/브리즈번



ACC 협력기관



소중한 당신을 위한
호주 한인 생명의전화

+61) 2 9858 5900
24시 무료상담

info@koreanlifeline.org
www.koreanlifeline.org

생명의 전화는 삶의 벼랑 끝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위기 상담과 정보 제공 및 의뢰처를 연결해 드립니다. 호주 전역 24시간 가능.
*상담원 모집 문의 : +61) 430 045 078



원앤원(One&One)
심리상담연구소

+61) 2 6255 4597
+61) 402 140 905

info@accu.edu.au

탁월한 심리 상담연구소 원앤원(One&One)에서는 경험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각종 정신건강, 심리문제 및 가족, 관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관련 심리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Charis College
Ministry

+61) 402 140 905

ccm@accu.edu.au

선교지에 상담학 교육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 전역 장학금 교육을 실시해서 호주 상담학 학위를 수여하여 기독교 상담자를 양성하여 선교 국가에 개인과 가정, 사회와 나라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일본, 몽골, 탈북민, 태국, 말레이시아 시작)



시와 산문이 있는 자리

찰나

파란불이 켜졌다. 맥도날드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지호가 엎어달라고 했다.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등을 내밀자 냉큼 내 목을 끌어안더니 코알라처럼 등에 딱 밀착하여 었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이 따뜻한 느낌이 좋다. 두 손으로 깍지를 끼어 녀석의 말랑한 엉덩이를 받쳤다. 등실등실 흔들며 건너고 있을 때, 저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가 달려왔다.

‘저 차는 왜?’ 하는 순간, 신호에서 멈추지 않은 차는 내 앞을 빠르게 지나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두 대의 차를 들이받으며 빙그르르 돌았다. 우지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의 문짝은 휴지처럼 구겨지며 떨어져 나갔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었다. 딱 한 걸음 차이였다. 아이를 업느라 조금 머뭇거렸던 것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냥 손잡고 건넌다면 내게 덮칠 사고였다. 나는 길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침에 딸은 병원 간다며 잠시 아이를 맡겼다. 아이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밀가루 반죽 놀이도 했다. 마당에 나가서 풀꽃을 뜯어 소꿉놀이를 하다가 시들해질 즈음 놀이터에 가고 싶어 했다. 집 근처 맥도날드에 가자고 했다. 어른 걸음으로 5분 거리지만 힘들 것 같아서 업어 줄까 했더니 그때는 자기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며 의젓하게 걸어갔다.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맥도날드 정글 틀로 기어 올라가 고개를 내밀고 까르르 웃었다. 까마득한 꼭대기로 익숙하게 오르는 아이를 보며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에 도착했는데 어디 있다고 물었다. 길 건너편 맥도날드에 있다고 하자 딸은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다. 놀고 있던 아이를 채근해서 집으로 향해 돌아오던 중이었다. 길 건너편에서 마중 오던 딸이 사고 현장을 보고 하얗게 질려서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 지호야 괜찮아?" 등에 업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던 아이가 그제야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를 맞았다.

놀란 마음을 다스리며 집에 돌아왔다. 첫날엔 그저 덩 덩하게 지났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순간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벌렁거렸다. 기껏 외손자와 잘 놀고 오다가 아차 하는 순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얼마 전 TV에서 외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할머니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뉴스가 있었다. 블랙박스에는 마지막 순간의 상황이 생생하게 저장되었다. 절규하듯 다급하게 손자의 이름을 외치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충격이었다. 안타깝게 손자는 죽고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세상에, 저이는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다.’ 뉴스를 보며 왈각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 집 근처는 차가 혼잡하지는 않지만, 웨스턴 하이웨이에 인접한 집이라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 이유로 매일 새벽 남편이 출근할 때, 대문 앞에서 남편의 차가 도로에 안전하게 들어서서 떠나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아이들이 놀러 오면 행여 놀다가 길로 뛰어나갈까 봐 대문을 걸어두며 늘 조심했다. 이젠 아이와 맥도날드 쪽으로 다니는 가지도 말아야지 마음먹지만, 그 길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는 살면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보니 오래전에도 찰나에 죽음을 비껴간 일이 또 있다. 아들과 함께 동네 쇼핑센터에 갔을 때였다. 친구가 일하던 가게에 잠시 들렀다가 아들이 월남 빵을 먹고 싶다고 해서 푸드코트에 있는 월남 빵 파는 가게에 갔다. 빵을 사서 가게 앞 테이블에서 먹으려고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먹자며 돌아왔

다. 집에 온 후 얼마 안 되어 사이렌 소리가 나고 한바탕 동네가 들썩였다. 쇼핑센터 쪽으로 소방차와 앰블런스가 끝도 없이 달려갔다. 방금 있다 왔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쇼핑센터에 불이 난 거였다. 나중에 친구가 전한 이야기로는 우리가 떠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우리가 앉았던 빵집 앞에서 가스폭발로 일어난 사고였다.

마당 한구석에 지호가 가지고 놀던 민들레의 노란 꽃잎과 수북이 쌓아둔 반질반질한 돌멩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호가 좋아하던 유난히 반짝거리는 돌멩이를 손에 쥐고 소중한 무엇이나 되듯 쓰다듬고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들도 모두 새롭게 보였다. 빨래를 하려고 세탁물을 거두어 세탁기에 넣다가 늘 뒤집혀 있어 신경 거슬리게 하던 남편의 양말도 오늘날은 괜찮다. 거실 바닥에 그가 벗어던져 널브러진 옷가지도 그저 툭 털고 챙긴다. 그동안 사고를 잘 비껴갔지만 아무 때고 예고 없이 훌쩍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서늘해진다. 익숙하던 것들이 그저 계속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 아득히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김미경

2009년 '문학시대' 수필 등단.
수필집 '배들한 맛을 위하여',
공동 수필집 '바다 건너 당신'.
문학동인 캠퍼스 회원.

▶ 26면에서 이어받음

ATO 수치를 보면 학비의 경우, 2005-06년 평균 HELP 부채는 120만 명의 채무자에, 금액은 각 1만460달러였다. 그리고 이는 2022-23년, 300만 명의 채무자에 각 2만6,494달러로 늘어났다.

상환된 HECS 총 부채는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연동(by indexation)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HECS 부채에 대한 연동은 매년 6월 1일 추가된다.

미상환 금액은 2023년 7.1%, 2022년 3.9%로 지수화(indexed) 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022년 12월까지 전년대비 7.8% 상승했는데, 이는 HECS가 도입된 직후인 1990년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HELP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연동 계산에 사용되는 부채 잔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ATO 수치를 보면, 자발적 상환액은 2021-22년 60억 달러에서 2022-23년 89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달(2월) 발표된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나중에 소득조건부 대출을 통해 교육비용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고등교육(학비) 대출제도의 핵심 원칙은 여전히 건전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HELP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들 것을 권고했다(한국신문 3월 1일 자 기사 참조).

이 검토의 일부 권장사항에는 저소득층 HELP 상환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HELP 대출이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2면에서 이어받음

호주 스몰비즈니스 협의회인 ‘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 (COSBOA)의 루크 아흐터스트라트(Luke Achterstraat) 최고경영자는 “소규모 업체들이 비즈니스 위기를 극복해 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더 저렴한

수수료 처리 방법 있지만...

RBA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업체 업체의 eftpos 거래 비용은 100달러 결제 시 평균 30센트, 즉 0.3%인 반면 비자나 마스터 직불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평균 0.5%이다.

마스터와 비자카드 신용카드는 0.9%,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 다이너스 클럽(Diners Club)사의 크레딧카드 결제 비용은 약 1.3%에서 1.7%로 가장 비싸다.

카드 발행사에 지불하는 결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RBA는 최소 비용 라우팅(least-cost routing, LCR)이라는 계획을 도입했다. 이는 각 소매업체의 단말기가 자동으로 최저 수수료 네트워크로 기본 설정됨을 의미한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장 적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직불카드 거래(debit transaction)로 자동 처리되는 것이다.

이의 도입은 카드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압박이 되어야 하고, 그 효과는 소비자에게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각 카드 발행은행들의 LCR 지원 비즈니스 터미널은 64%에 불과하다. RBA는 “이의 실행이 실망스러운 정도로 더디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은행이 최소 비용 라우팅으로 수수료를 덜 벌어들이기 위해 이(더딘

보급)은 은행 탓이라고 보고 있다. 카드 결제 컨설팅 회사 ‘Payment Services’사의 브래드 켈리(Brad Kelly) 대표는 “발행사들은 eftpos보다 마스터 또는 비자카드 수수료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 소매업체와 소비자에 ‘부담’ 전가

켈리 대표는 은행과 모든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맹점에(수수료) 정액 요금을 부과해 ‘괴롭히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결제 유형의 처리에 동일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어 “일부 은행들은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경쟁하는, eftpos라는 매우 저렴한 직불 네트워크를 보유한 호주의 독특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는 “수수료가 저렴한 eftpos 거래를 통해 최대 1.5~2%의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차 지원”이라는 것이다.

호주의 4대 은행이 제공하는 고정 수수료율은 1.1%에서 1.4% 범위이다. 이런 가운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Tyro EFTPOS Machines’사는 1.4%를, 글로벌 거대업체인 ‘Square’사는 1.6%를 청구하고 있다.

은행 부문에서는, 일부업체의 경우 확실성을 위해 정액 수수료를 선호하며 궁극적으로 최소 비용 라우팅을 선택하는 것은 업체의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호주 은행협의회의인 ‘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의 안나 블라이(Anna Bligh) 최고경영자는 “업계는 각 업체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수료를 줄이려는 업체는 최소 비용 라우팅을 도입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모든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 측은 1.1%의 카드 수수료를 설명하며 “간소화된 수수료 옵션(simplified pricing option)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ANZ 은행은 소매업체를 위해 LCR을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으며 NAB 은행은 “LCR이 모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항상 저렴한 옵션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결제 서비스사인 ‘Square’는 수수료에 대해 간단하고 투명함을 언급하며 “수수료에는 비용 결제 외 추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인 ‘Tyro’는 “새로 시작하는 소매업체에게는 LCR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대부분의 업체는 정해진 수수료율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BA, ‘LCR 의무화’ 경고

이런 가운데 RBA 미셸 불록(Michele Bullock) 총재는 업계가 올해 중반까지 목표치인 8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LCR을 의무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이것이 소매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RBA 방침을 환영했다.

아흐터스트라트 대표는 타스마니아의 한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LCR을 통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절약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제 서비스 업체와 은행이 이 같은 최소(수수료) 비용 라우팅을 위한 기회를 촉진

한인회 소식

■ 재외동포청장 한인회 내방

지난 3월 12일(화), 재외동포청 이기철 청장과 동포청 관계자들이 크로이돈 소재 한인회관을 방문하여, 제34대 시드니 한인회 오혜영 회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상과 PPT 자료를 통해 시드니 한인회의 역사와 규모, 중점 활동내용 등을 소개하였고, 향후 재외동포청과의 상호공조 및 협력과 지원에 대한 폭넓은 의견들을 교환했다.



한인회 소개영상을 보고 있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 NSW 부 주총리와 이기철 동포청장 접견

3월 13일(수), 제34시드니 한인회 오혜영 회장은 Jason Yat-Sen Li(MP, Member for Strathfield)의 도움으로 NSW 부수상 겸 교육부 장관 Prue Car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접견을 주선했다.

이날 접견의 주요 목적은 호주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게재시키고자 하는 재외동포청의 의사전달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긴장정의 첫걸음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하고 가능한 쉽게 옵트인(opt-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협의회의 블라이 CEO는 RBA의 이런 조치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다양한 이유로 패키지를 선택하는데, 가맹점 수수료는 패키지의 일부일 뿐”이라며 “터미널 임대 비용은 패키지와 기타 다양한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어 “최소 비용 라우

팅이 업계에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수수료를 약간 인하하는 것보다 패키지의 일부를 더 높게 평가하기에 자발적으로 100% LCR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QLD 보건부 의료 책임자 주도의 'COVID 감염자-기타 호흡기 질환자 추적 연구'



COVID-19에 감염됐던 환자가 장기간 유사한 증상으로 정애를 겪는 long COVID 관련 추적 연구 결과 바이러스 후 증후군(post-viral syndromes)과 구별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COVID-19에 감염됐던 이들이 바이러스 완치 후에도 3개월 이상 같은 증상이 이어지며 쇠약증후군을 호소하는 'long COVID'가 또 하나의 공공보건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

포 3년이 되던 지난해 3월, 호주 보건복지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은 SARS-CoV-2에 감염된 호주인의 5~10%가 3개월 이상 COVID 증상이 지속되는, long COVID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

다. 그때까지 보고된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long COVID를 경험한 호주는 55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long COVID는 실제로 심각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것일까. long COVID 문제가 속속 제기되던 가운데 COVID-19에 감염됐던 이들과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장기적 손상 비율을 추적한 연구 결과 "long COVID는 다른 바이러스 후 증후군(post-viral syndromes)과 구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퀸즐랜드

(Queensland) 주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 존 제러드(John Gerrard) 박사 주도의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연구팀은 COVID-19 감염자 약 2,400명과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타 호흡기 질환자 약 2,700명을 추적했다.

그 결과 감염 1년 후,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인 이들 중 3%는 중간 정도의 질환에서 심각한 장애(moderate to severe impairment, 예를 들어 long COVID)를 보고했다. 독감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이들 중 이 비율은 4.1%였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연령, 성별, 시험 참가자의 원주민 신분 여부 등 요인을 통제 후 COVID-19 감염으로 인해 장기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러드 박사는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고 상당한 수의 감염자가 발생했기에 long COVID가 '심각하고 뚜렷한 질병'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long COVID와 같은 용어 사용을 중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제러드 박사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COVID-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장기적인 증상에 뭔가 독특하고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잘못된 암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3월 셋째 주말 Titan과의 개막 경기 앞두고 El-Hayek 시장, 관리직원들 격려



럭비 시즌 개막을 앞두고 Belmore Sports Ground를 찾은 엘-하예크(Bilal El-Hayek, 사진 오른쪽) 시장과 경기장 잔디관리 책임자인 리 베스트(Lee Best, 왼쪽)씨. 사진: CB City 제공

내셔널 럭비 리그(National Rugby League)가 이달 셋째 주말 개막된다. 전통의 강자 '캔터베리 뱅스타운 불독'(Canterbury-Bankstown Bulldogs)은 첫 경기로 홈구장인 Belmore Sports Ground에서 골드코스트(Gold Coast)를 홈으로 하는 'Titan' 팀과 맞붙는다.

겨울 시즌의 대표적 리그인 럭비는 호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로,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은 마치 초기 백인 정착민들이 호주의 거친 자연에 굴복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국가를 형성해 가는 힘든 과정을 연상하게 만든다.

럭비 시즌이 시작되면 모

든 이들의 시선은 팀과 선수들에게 쏠린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선수들이다. 그런 반면, 그들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각 연고지 팬들을 위해 최선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경기장 잔디관리(greenkeeper) 요원이다.

불독 팀이 홈 구장으로 이용하는 Belmore Sports Ground에는 CB 카운슬에서 28년간 근무해 온, 노련한 그린키퍼가 있다. 경기장 잔디관리 책임자인 리 베스트(Lee Best)씨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경기장 잔디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다. 베스트씨와 그의 보조 요원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다. 경기를 펼치기 위해 이들은 한 주에 4차례, 백필드(back fields) 구역은 3번을

깎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는 것 외에도 액체비료, 살균제, 제초제, 경기장 관개시설 관리 등 훨씬 더 많은 일이 있다. 게다가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가 펼쳐지는 시간 사이에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씨는 "일에 대한 만족감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며 "경기가 있기 전날,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경기장을 바라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베스트씨는 지난 1996년 CB 카운슬에 견습 그린키퍼로 입사한 뒤 Canterbury Golf Course 관리 담당자를 거쳐 지금은 Belmore Sports Ground 관리 책임자로 있다. 그는 CB 카운슬에서 일하기 전, 친구들과 골프를 치면서 필드에서 일하는 직원을 보게 되었는데, 문득 자신이 잔디관리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린키퍼가 됐다.

한편 럭비 시즌 개막을 앞두고 CB City의 빌랄 엘-하예크(Bilal El-Hayek) 시장은 Belmore Sports Ground를 찾아 베스트씨를 비롯한 그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시장은 베스트씨에 대해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수들처럼 경기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지역의 '불독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잔디를 관리해 달라고 농담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은 캔터베리 뱅스타운 지역민들이 이번 주말 경기장을 찾아 우리 팀을 응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30면에서 이어받음

아울러 그는 “이 용어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장기간의 증상에 대한 과도한 경계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제러드 박사팀의 연구는 다음달(4월) 유럽 전염병 관련 학회인 ‘European Congress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에서 발표될 예정이지만 동료 연구원들의 검토 개방형 저널인 ‘BMJ Public Health’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팀이 지난해, COVID-19 감염 12주 후의 참가자 상태를 추적한 이전 연구는 ‘BMJ’에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추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연구에서도 제러드 박사 연구팀은 COVID-19 감염자와 독감 환자들 사이에 진행 중인 증상 및 장기적 장애에서 비슷한 비율을 발견했다. 당시 연구팀은 해당 연구(BMJ에 게재한)를 통해 “long COVID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 심각하지 않은 바이러스 후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

다.

반면 머독대학교(Murdoch University) 보건과학자인 제레미 니콜슨(Jeremy Nicholson) 교수는 long COVID가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는 독특한 질환인지, 아니면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한 또 다른 증후군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질문은 이번 연구(제러드 박사 연구팀의)에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서 “생리학적 또는 상세한 기능적 후속 데이터 없이 보고된 증상을 기반으로 한 관찰 연구”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환자에 대한 실험실 분석 없이, long COVID가 다른 바이러스 후 증후군과 생리학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이 용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니콜슨 교수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long COVID’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개인의 근본적인 바이러스 원인을 정확히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제러드 박사는 노즐중, 심장



퀸즐랜드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인 존 제러드(John Gerrard, 사진 왼쪽) 박사. 이번 연구를 주도한 그는 long COVID가 다른 바이러스 후 증후군(post-viral syndromes)과 구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Wikipedia

마비, 심근염(myocarditis) 등 COVID-19 감염 이후 진행 중인 건강 문제 관련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는 이번 추적 연구에 대해 “향후 COVID-19 이후 결과를 다른 호흡기 감염 이후의 양상과 비교하는 등 바이러스 후 증후군에 대한 추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Korean Community's & Best Quality Newspaper

“한국신문은 호주한인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장 이윤신 Peter Lee
- 편집인 김인구
- 편집국장 김지환 Kevin Kim
- 디자인 Emily Cha
- 관리 이선옥

카카오톡 : Koreanherald
페이스북 : 한국신문

T. (02) 9789 3300
E. herald@koreanherald.com.au
W. www.koreanherald.com.au
A. 105/118 Great North Rd
Five Dock NSW 2046

저작권자(©)한국신문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인직영, 한인전용 한솔장례식장

“장례 기간중 입관식, 장례식, 빈소운영, 조문객 접대등 모든 절차를 준비된 한곳의 장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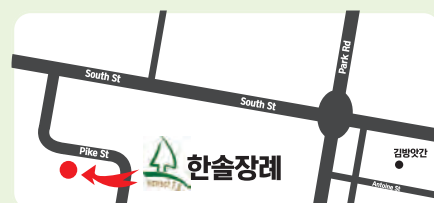
1. 예식장 - 장례식, 입관식 & 추모식 진행 - 70명 + 수용 규모
2. 빈소 - 장례 기간중 조문을 받을 수 있는 한인 전통식 공간
3. 조문객 접대실 - 장례 기간중 방문하신 조문객 접대 - 80명 동시 수용 규모

4. 부엌 - 조문객 접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넓은 공간
5. 유가족 휴게실 - 빈소 운영중 필요에 따라 유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한솔장례 Hansol Funeral Services P/L

문의: 02 9858 5547 / 0404 116 758 (주 7일 / 24시간)
주소: 12 Pike St. Rydalmere NSW 2116
info@hansolfs.com.au / www.hansolfs.com.au



레이델과 함께하는 제1회 장수인자 HDL 혈관건강 세미나

태양이나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이토록 유한한 시간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며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시작하게 되고 혈관건강의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건강장수” 즉,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교민 여러분과 함께해온 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 레이델 (구, 레인보우)에서는 **혈관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수인자 HDL에 대한 건강정보 나눔**의 시간을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건강장수의 비밀을 확인하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2024

4. 5 (금)

11:00am-12:30pm

· RYDE EASTWOOD
LEAGUES

· 무료 (간단한 점심식사 제공)

· QR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YDEL
Health Confidence